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JAN 5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15 1982년 12월 2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December 2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김대중씨 미국향발

부인및 두아들과 씨애틀 경유 워싱톤으로

건강에는 별이상 없어…서울대학병원측 밝혀

◆김대중씨

(서울 23일=연합) 지난 1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옥한 김대중씨가 신병치료차 가족과 함께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김씨는 부인 이희호여사와 장남 홍업씨, 3남 홍걸씨와 함께 노스웨스트(NWA) 020기편으로 밤7:30분 김포공항을 출발 씨애틀로 향했다. 김씨는 일단 씨애틀에서 미국 입국수속을 마친후 워싱톤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40분 늦게 출발한 김씨 일행은 워싱톤에서 처남 이성호씨와 만난후 앞으로 거처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가 출옥후 일주일간 입원했던 서울대학병원측은 김씨가 보행이 약간 불편할뿐 건강에는 별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입원할 병원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병치료에 전념할것이라고 측근들이 전했다.

지난 81년1월 대법원에서 소위 「김대중 사건」에 연루,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김씨는 그후 지난 16일까지 청주교도소에 수감됐었다. 김씨의 사형언도 직후 전두환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금년봄 20년형으로 다시 감형 되었다.

김씨의 이번 출국은 형집행정지에 의한 것이며 내란음모죄가 완전 사면된것은 아닌것이며

그는 이러한 급작스런 출국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야노버, 제롤 재판 암살기도협의벗어

찰스·야노버(36)와 알렉산더·마이클·제롤(33)이 22일 온타리오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대통령 암살음모와 관련된 3가지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이날 야노버와 제롤은 (1)암살음모 (2)캐나다 국외에서의 범죄에 의해 취득된 재산소지 (3)캐나다 국내에서의 범죄에 의해 취득된 재산 소지등 3가지 혐의에 대하 검찰은 자진 기소취하했다.

그러나 이들의 대통령 암살음모와 관련 한 사기사건에 관한 3가지 혐의건은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이다.

야노버와 제롤은 현재 또다른 사건인 아비브레스토랑 폭발사건으로 보석이 거부된채 수감돼 있다.

나이아가라가 춤추는 聖誕節「빛의 祝祭」

▲성탄절을 맞아 나이아가라에서 벌어진「빛의 축제」에 크리스마스트리와 인근 빌딩의 불빛들이 찬란한 불꽃 축유 주고있다. 연말까지 계속될 이축제에 3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나이아가라폴스)

"청와대비서실 개편 김대중씨 석방과 무관"

류병현 주미대사 밝혀

서부지역 경제협의회에 참석키위해 LA를 방문한 류병현주미대사는 20일 『한미양국의 과거 불편한 관계가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최근에는 미행정부와는 전화로도 협조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의회관계자도 언제나 만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오5시 숙소인 센추리플라자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류대사는 화제가 김대중씨 도미허용문제에 이르자 『미국무성당국도 김씨 도미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면서 『이번 도미는 김씨자신이 원했다고 볼수있다』고 해석했다.

▲류병현주미대사는 한미관계는 최근들어 괄목할만큼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한·미 不便한관계 대부분해소

김대중씨 석방과 청와대 고위직인사개편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류대사는 『청와대비서실개편은 전대통령이 평소 구상하고 있는 소신의 일면이며 발전단계의 표시로 볼수있다』고 말했다.

재미동포들의 법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류대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서 건의한 미시민권자교포의 본국재산반출 문제등도 본국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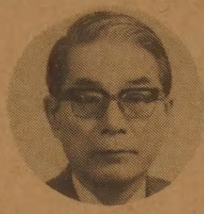
한편 북한방문교포에 대하여는 「민주운동운운」하면서 북한김일성을 찾는것은 자손들을 위해서도 옳지못하다면서 반정부를 하려면 똑똑한 반정부를 해야할것 이라고 비난.

그는 재미동포 2세교육문제에도 언급해 『재미학자들이 마련한 해외교육용자료가 이미 문교부에 송부돼 빠르면 내년중 새교과서가 해외한국학교에 배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LA지사)

〈성탄 메시지〉

이해남박사(전 한양대총장)


◆이해남박사

아시다시피 SOS는 한 단어, "모어스"(Morse)부호 장단의 제일 초보 "단·단·단 장·장·장 단·단·단." S·O·S는 3개 단어의 약자로, 여기서는 "이 영혼들을 구하소서"(Save Our Souls)의 뜻으로 썼다. 따라서 본시 SOS 바로 S.O.S.는 아니나 어쨌든 다급한 SOS! S.O.S! 왜?

인간은 분명히 만물의 영장이라. 자기를 정복하기도 전에 만물을 다 정복하고 말았다. 꼭 자기를 먼저 정복했어야 했는데, 이게 큰 사고! 그래서 "아담의 사과"가 목에 걸린 날부터 하늘에서 "초비(acid rain)가 내리는 이해까지, 천명( )도 전통적 가치도 아랑곳 없이 인간은 제멋에 사는 만물의 폭군이 되고 말았다. S.O.S.!

이제 대자연은 인간에

SOS! S.O.S!

반격! 숨쉴 공기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심지어는 인간 자체가 살아나갈 그 생활공간 전체를 위협하면서, "그래도 네 버릇 못고쳐?" 하고 엄습해 온다. 그러나 신통한 인간은 여기에도 임기응변, 꾸며낸 인공 "자연"을 숭상하고, 괴이한 '초자연'을 경배하면서 정직한 거짓말장이 사회를 꾸미려 든다. S.O.S.!

그 결과, TV주연은 조작인형(puppet)이 하고, 영화주연은 "로우밭(robot)"이 하고, "미국 최대의 영웅"은 자를 가슴에 달고 날으는 허황한 인물이다. 또 비타민이 자연식품, 화장품은 자연미의 창조주, 합성된 공장 맥주가 "순 자연맥주"! S.O.S.!

이 정직한 거짓말장이 원조는 대사님들. 근대외교 발생후 대사될 첫 자격은 항상 정직하게 거짓말 잘 하는 재주.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 이제는 시시한 일상생활의 인간관계마저 다 외교적 관계로 변해 버렸다. 인간은 이때까지 만들어진 어떤 기계보다도 더 정교한 기계! 그런데 아무리 시시한 기계라도 그 설명서를 안보고는 쓰는 법이 없는데, 사람만은 그 제작자의 설명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 쓰려드니, 인간사회가 고장 투성이일 수밖에, S.O.S.!

때문에, "비타민 성경"만 읽고 사는 인간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행은 날로 매진. 아무거나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개인이나, 공장 폐수나 굴뚝 독연을 마구 내뿜는 기업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생사람 때려잡는 깡패나, 남 보고 멸시·모략·모른체하는 점잔하신 분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인간이 "자기 편"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질 수가 없는 한, 우리는 다 우리 환경에 대한 끔찍한 가해자들! S.O.S.!

성탄계절, 세모, 연말, 인간이 한해를 단위로 새로워지려는 '결의를' 해보는 것은 인간본성의 선함에서 나온 종교심의 발로! "제버릇" 좀 반성하고, "자기편이" 좀 젖혀놓고, 남 생각도 해가면서 살자는 뜻에서이다. 그런데 그게 점점 퇴보해 가니 S.O.S.!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집안·이웃·교포·교회·타교파 사람들과 등지고 살면서, 눈에 안보이는 하느님 사랑한다는 사람 보시거든, "요 새빨간 거짓말장이!" (요한/서 4:20)하고 욕좀 실컷 퍼부어 주시기를! S.O.S.!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란컴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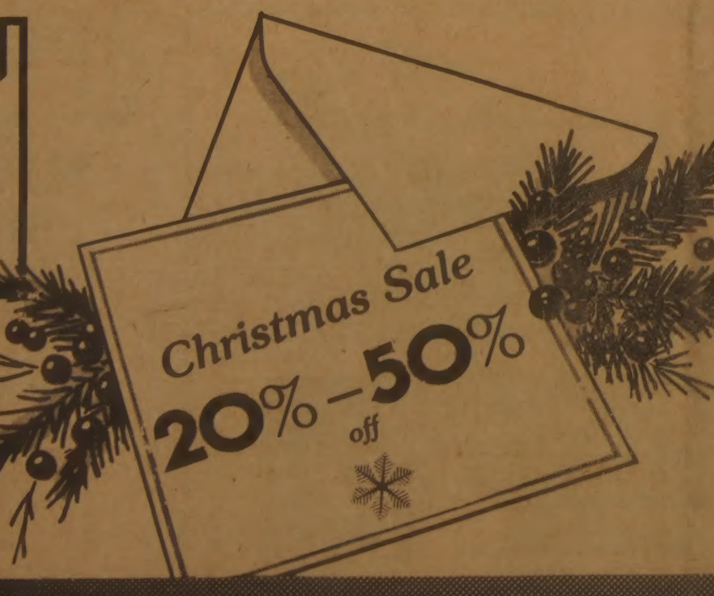
성탄특집 지면안내

〈27일, 28일에는 우편배달이 없읍니다.〉

◆ 주요내용

1면-김대중 미국행발.
2면-김총리 LA도착.
3면-경제회복 어두워.
4면-남편에 살해되는 아내.
5면-성탄이야기.
6면-연말 세무상식.
7면-성탄동화
8면-영화및 TV안내
9면~13면-한국일보 본국판
14면~15면-안내광고
16면-전면광고

세일품목
Diamond
일본산 진주
비 취
이태리산 14K
삼색목걸이



Boxing Day세일

KORYO
JEWELLERS
고려보석
카나다 보석협회 회원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김상협 총리 LA 방문

남미4개국 순방마치고 귀국길에

(LA지사)김상협국무총리가 21일 LA를 방문했다. 남미 4개국순방을 마치고 귀국도중 LA를 잠시 방문한 김총리는 이날 하오 센추리플라자호텔에서 교포사회단체장들과 시국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총리는 이날 상오11시20분 웨스턴에어라인 741편으로 멕시코에서 LA에 도착, 류병현대사와 박민수총영사가 영접했다. 김총리는 남미의 콜롬비아, 페루, 칠리, 멕시코등을 방문했었다.

수행원일행 가운데는 서상철동자부장관, 노재원외무차관, 금진호상공차관, 조영철총리비서실장, 김한경의전관, 정연춘공보관과 보도진11명이 포함됐다.

이날저녁 간담회에는 약 30명의 인사들이 초청됐는데 재미동포사회와 본국간의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들이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김총리는 22일 하오2시 KAL편으로 귀국했다.

◆LA에 도착한 김상협국무총리-남미4개국 순방후 귀국길에 LA에 들른 김총리가 숙소인 센추리플라자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뒷쪽은 부인 김인숙여사. 김총리는 이날 하오 교포단체장들과 시국간담회를 가진다. (LA지사)

김대중씨의 강제출국(?) 사유

이미지 쇄신 시도

어두운 사건들의 마무리

미국·일본 압력 주효한듯

(서울·워싱턴·도쿄-외신종합)
미국정부는 김대중씨의 도착 즉시 해군병원 또는 육군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할 뜻을 밝혔다.

김씨의 재미동향을 살피기 위해 한국당국 관계자가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설도 있다.

한국정부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김씨사건 관련자 이문영(전 고대교수)·문익환(목사·한신대 교수)등 7명과 광주사건·인혁당사건 관련자, 계엄령 위반자등 다수의 형집행 정지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하오 서울대학병원 특별병실에서 김씨와 약 3시간 면회한 부인 이희호여사는 "미국행보다 완전석방을 바란다."고 전제, (1)김씨가 당국이 알선한 사진사에 의해 여권신청용 칼러사진을 병실에서 중머리 그대로 찍었고, 부인은 병실에서 김씨의 여권신청서 서류등을 대필했다고 전했다.

김대중씨는 작년 1월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사형확정, 즉각 대통령권한에 의해 무기로 감형되었고, 금년 3월 다시 20년으로 감형되어 청주형무소에 수감중이었다.

김씨는 76년 3월1일,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5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중 77년 10월 19일 서울대학병원에 이송되어 78년 12월27일 석방되었었다.

이번 김대중씨에 대한 완화조치는 미·일 양정부의 즉각적 환영을 받았다. 미국은 "미국정부는 김대중씨의 병원이송을 환영한다"고 말해 이번 한국정부 결정에 미국측 작용이 있었음을 비쳤으며, 또한 미국이 김씨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일본정부도 김씨 출옥을 「인도적 조치」로 환영했다.

일본 외무성은 "김씨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내문제"라고 노골적 논평을 피하면서도 "앞으로도 너그러운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측은 공화당시대인 지난 73년 김씨가 일본에서 납치, 강제귀국 당한 사건이후 한국정부와의 사이에 서먹서먹한 구석이 남아왔으나, 이번 김씨 출옥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외신 관측통은 한국정부가 김씨에 대해 출옥·출국등 일련의 관대한 처사를 취하게 된 것을 미·일과의 관계개선과 국내의 융화도 내다본 양면작전으로 보고 있다. 금년봄 이래 경찰관총기난동사건, 장영자여인사건(거액수표 사기사건)등 어두운 뉴스가 연달았으므로 이번의 정부결정은 정부가 국내 민주화 실현을 꾀하는 정책전환의 징후라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도 있다.

전대통령 정부는 이제까지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자택연금을 비롯, 박정권시대의 구정치가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번의 갑작스런 김씨 출옥조처는 뜻밖의 처사로, 대개 아래 세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로,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다. 미국은 레이건정권이 들어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범에 대한 「관대한 조처」를 요청해왔다. 지난 4월 방한한 부쉬 미국부통령은 한국국회에서의 연설에서 니콰라가의 인권문제를 들먹여 "모든 나라에서 민주적 관습이 억압되고 있음을 통탄한다"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김대중씨등 정치범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지난달 서울을 방문한 이글버거 미국무차관(정치담당)도 한국정부 수뇌와의 비공식회담에서 이 문제에 언급, 정치의 민주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씨의 미국에의 「출국」조처는 그 단계에서 합의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전두환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확실시 된다.

둘째로, 일본에 대한 배려이다. 한일 양국은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어색해진 양국관계를 개선할 첫걸음으로 12월21일부터 도쿄에서 한일의원회의를 열었다. 이 회합에는 한국에서 약 50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하고, 일본측에서도 김씨석방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김씨의 형정지처분결정은 한일간의 얽힌 난제인 「김대중사건」을 일단 마무리짓는 것으로 양국의 원회의에 좋은 영향을 끼쳐, 우호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째로, 국내정치에의 배려를 들겠다.

정부는 수립이래 인권과 관계깊은 민주·정의·복지등을 국정의 목표로 내걸고, 깨끗한 정치, 구시대의 청산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장여인사건등 어두운 사건들이 꼬리를 이어, 「슬로건과 현실의 차이」에 강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그같은 일련의 사건의 후유증이 가라앉는 때를 맞추어 한국정부는 국내외 이미지 쇄신의 카드로 「김대중씨 출옥」을 단행했다는 추측도 있다.

친여계 「경향신문」은 '정치성숙,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논평했다.

◆김대중씨 약력◆

◎1925년 12월: 전남 출생

◎60년: 국회의원에 첫 당선.

◎61년: 5.16군사혁명으로 의원직 박탈후, 63년, 67년 71년에 각각 국회의원 당선.

◎71년 4월: 대통령선거에 출마(야당인 신민당 후보), 현직 박대통령에 패배.

◎72년 10월: 한국에 전면적 계엄령 선포로 당시 해외에 있던 김씨는 귀국 못하고, 미·일 양국에서 박정권 비판, 민주화운동 계속.

◎73년 8월: 도쿄의 호텔에서 유괴되어 한국으로 연행후 8월13일 석방.

◎76년 3월에 발표한 「민주구국선언」이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기소.

◎77년 3월: 징역 5년의 유죄확정으로 복역.

◎78년 12월: 특사에 의한 형집행 정지로 석방.

◎79년: 민주민족통일국민연합 결성. 재야반정부운동 지도자로 활약중 박대통령 피살사건후 현정권 체제로의 이행시인 80년5월 김종필 전총리등과 함께 체포.

◎80년 7월31일: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등의 죄목으로 한국계엄사령부의 기소로 동년 9월17일 보통군법회의 제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 판결. 11월3일의 군법회의 제2심서도 사형언도.

◎81년 1월23일: 대법원은 제1심 판결을 지지, 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직후 (1)우호국가등에서 인도적견지에 따른 관용호소 의견이 있었고, (2)사건자체가 구시대의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3)82년 3월2일, 제5공화국 1주년을 기념하여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중공유학생 종적묘연

경찰수사, 정치적사건인듯

캐나다연방경찰(RCMP)은 오타와에 있는 중공대사관이 본국에서 유학온 한학생을 체포했음을 중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경찰 보안국의 렌·길스경사는 "RCMP는 이사건을 매우 중요시하며 외무성및 이민성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파악을 면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첸씨이라고만 알려진 이 중공학생은 2주일전 캐나다망명을 공식발표한 47세의 중공과학자인 류싱빙의 동료였다.

첸씨는 약3주일전 여행서류를 찾아가기 위해 중공대사관을 방문한후 종적이 감춰진것으로 알려졌다.

망명자인 류씨의 측근에 의하면 첸씨는 일본에서 대만에 거주하는 삼촌을 만나기 위해 여행서류를 찾아가기 위해 중공대사관을 들렸다는 것.

첸씨가 실종되기 몇일전에 메길대학에 와 있던 중공학자인 왕빙세박사도 캐나다로 정치적 망명을 선언했었다.

RCMP의 길스경사는 "첸씨의 실종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대각사 공개설법

150여교민 참가

지난 18일 하오3시 한인회관에서 있는 대각사주최 활산성수스님과 중국계 성상스님의 공개설법에는 15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했다.

대각사의 창건주 49제를 겸한 이날 모임에는 앨런·레드웨이 전 이스트·욕시장등 캐네디언과 젊은 청중들을 위해 설법내용을 영어로 통역했었다.

Merry X-mas & Happy New Year

제5계절 필진이 바뀝니다

〈제5계절〉의 필진이 바뀝니다.

지난 3개월간 필자로 수고해주신 조정대(문협회장), 이필주(목사), 김인호(서양화가), 남지연(가정주부)씨에 독자와 더불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필진으로는 극단「얼」대표인 이장성씨, 대한교회의 조남유 목사, 부동산업자인 황순일씨, 성악가 이주연씨가 바톤을 이어 받습니다.

각기 다른 방면에서 활약중인 이들은 격조높은 필치로서 독자 여러분의 겨울을 훈훈히 밝혀주는 정신적 수확의 계절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새 필진의 약력

◆황순일씨
41년생
한양대공대 졸업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74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퍼머넌트·트러스트·세일즈맨

◆이장성씨
38년생
동국대 영문과
오레곤대학 연극과 석사
71년 토론토 정착이후 부동산업등 비지니스 종사
75년 뮤지컬 춘향전 연출
영어및 한국어 희곡작품 다수
극단 "얼"대표

◆조남유씨
37년 4월 출생
56년 배재고교 졸업
60년 감리교 신학대학졸업
63년 목사안수
인천·서울에서 목회
74년 캐나다 이주
81년 실협 사무장
82년 토론토 대한교회 목사

◆이주연씨
41년생
59년 이화여고 졸업
이대 음대 성악과및 동대학원 졸
뮌헨 국립음악학교 석사
69년 제네바 국제음악경연대회 동양인 최초로 성악1등
74년 캐나다 이주
한국·구라파·북미등지서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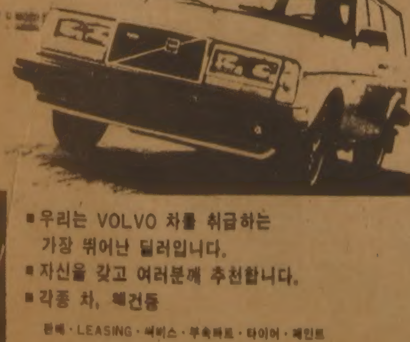
78명 앗아간「얼음속의 旅客機」

多事多難…「1년간의 世界」를 본다

'82 베스트·포토 〈시리즈②〉

▲82년 1월13일 하오4시경, 워싱턴 내셔널공항을 막 이륙한 에어플로리다항공의 보잉737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추락장소는 워싱턴시내 한복판, 강추위로 얼어붙은 포토맥강의 빙판. 사망자는 78명. 사진은 사건발생 닷새후인 18일 추락기의 꼬리부분이 인양되고있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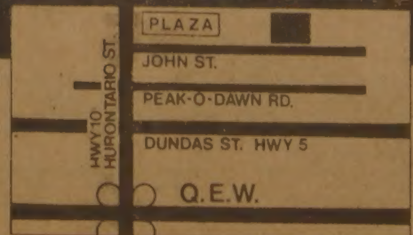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웨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 7664 ■■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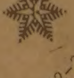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 — 1234
정 창 현

한인식품
SUN'S FRUIT MARKET
ㅁ도매업(감자·계란·각종 채소·화분등)
ㅁ토론토 전지역 주문배달
◎가주미 스페샬 $16.95
● 친절 봉사
● 저렴한 가격
● 철저한 신용



Tel: 622-2643
15 West Dean Pk. Dr.
(East Mall Plaza)

캐나다 경제 18개월뒤 회복

세계불황 쉽게 끝나지 않을듯

(파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쉽게 끝날것 같지 않으며 24회원국의 실직자수는 기록적인 약 3천5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경기전망보고서를 통해 불황이 예상 이상으로 심했고 또 오래 계속되어 경제회복이 지연돼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적인 무드가 쉽사리 사라질것으로 예상할 증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불황으로 이미 심한 타격을 받은 캐나다경제는 향후 18개월내에 눈에 띄게 회복될것 같지 않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는 이어 금년도 캐나다의 계절요인감안 GNP는 5%하락할 것이며 83년에는 1.25%증가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년도 캐나다의 실업율은 전체 노동인구의 평균13%로 OECD회원국중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가 될것이며 인플레율은 10%수준에서 약간 호전될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하지만 캐나다연방정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막·라롱재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비관적인 경기전망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롱장관은 "OECD는 과거에 지나치게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라롱장관은 경기회복 징조가 금년 4/4분기에 나타나, 내년도 GNP는 3%증가하며, 실업율도 금년말경 차차 감소, 인프레율도 평균 7.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바 있다.

선진 비공산권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OECD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내년초에 회복이 시작될지도 모르나 이또한 증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조립공 1,400명 해고

아메리칸모터스 브램톤공장 발표

브램톤에 있는 아메리칸·모터스·캐나다(AMC)의 1,400여 시간제 종업원들이 내년 부활절 이후 또다시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

AMC회사측은 21일 브램톤자동차 조립공장의 종업원들을 내년 4월12일부터 해고, 다음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확실히" 복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일개월간의 조업중단으로 실직되었다가 최근 복직되었다.

AMC대변인 알렌·메피씨는 AMC 스피릿, 콘코드, 이글등 차종의 판매부진과 새로운 모델을 위한 준비 때문에 조업을축소 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모터스는 금년 3/4분기에 총 1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AMC 브램톤공장의 400여 월급제 종업원들은 해고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며 또한 사니아와 스트레트포드에 있는 AMC조립공장들은 계속 정상조업을 하게된다.

온타리오주 노동법상 무기한해고계획은 16주이전에 발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들3형제(저스틴, 사샤, 미셸군)와 함께 찍은 트루도수상의 크리스마스카드.

〈트루도수상의 성탄메시지〉

행복한 시간의 시초

Christmas is a time to put aside our differences and restate our faith in the ideals of peace and brotherhood which Jesus taught. As we gather with friends and family to celebrate this warm and joyful season, we give thanks for the many opportunities given to us to share our good fortune with others.

I sincerely hope that the joy this season brings is only the beginning of many happy times to come. I wish all the readers of The Korea Times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and prosperous New Year.

Ottawa
1982

Pierre Elliott Trudeau

크리스마스는 예수·그리스도 가 가르치신 평화와 형제애의 이상(理想)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재천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훈훈하고 즐거운 시즌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및 가족과 한 자리에 모여 다른 사람들과 행운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시즌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앞으로 다가올 무수히 행복한 시간들의 시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토론토 한국일보〉의 전 애독자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번영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피에르·트루도 수상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7>

출발 ⑱

참은 풀어지게 상대방을 노려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연락은 어떻게하면 되겠오?』

『홍콩으로 연락할때는 0205 70733번으로 전화를 걸어주시오. 거기에있는 파일속에 전화번호가 모두 적혀있으니까 외운 다음 모두 없애시오. 일의 진행상황, 문의사항,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할때는 언제라도 전화해주시오. 한국지역전화는 서울 58834578입니다. 서울에도착하거든 그 전화번호를 호출하십시오. 그러면 지원조가 즉시 달려올 겁니다.』

『지원조라니?』

『선생한테는 지원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울테니까요.』

『그런건 필요없어요. 난 지금까지 혼자서 일을 처리해왔으니까 이번에도 내 방식대로 하겠오. 지원조같은 건 오히려 일에 방해만되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래도 지원조가 필요할겁니다. 일의 성질상 말입니다.』

『지원이 목적이아니라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겠지요. 어리석은 수작은 말아요.』

『선금으로 주는 백만달러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돈을 가지고 선생이 잠적해버린다면 우리는 이중으로 골치만 아프게 되지요.』

『이런 거래에는 보증이 있을수 없다는 거 당신들이 잘 알텐데. 어디까지나 상대를 믿을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거 잘 알고 있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선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게 많습니다. 선생이 홍콩에 계신것조차도 몰랐으니까요. 10년 가까이 여기서 개업하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선생은 뛰어난 변장의 명수이시니까 그럴만도 하지요. 우리는 아직 선생의 본명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있습니다. 국적은 물론 연고자에 대해서도 …그러니 안심할수가있어야죠.』

『여자가 와있지 않소?』

"깨끗이 해결할테니 감시하지 마시요"

朴 男 그림

『여자요? 하하하…』

함은 사내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청부살인업자의 사랑을 어디까지 믿어야할까요? 도대체 킬러의 가슴속에 사랑이란것이 있을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인질로 붙잡아두기는 했지만 우리는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선생이 그 여자를 포기하고 그리고 잠적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그 선도 백만달러도 잃게되지요. 그렇다고 그 여자의 고기값이 백만 달러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창가에 내다판다해도 기껏해야 1만달러도 못받을텐데…』

『나는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만나게될거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래를 일방적으로 어긴적이 없어요. 일단 흥정을 끝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끗이 처리를 해주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잘알고있을텐데…』

『물론이지요. 그래서 믿을만 하니까 의뢰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감시를 붙이겠다는거요?』

『거래가 워낙 큰 것인데다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지요.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해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방해만 되니까 감시따위는 붙이지 마시오. 난 그런건 질색이란 말이요.』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선생의 평판을 믿어보지요.』

미스 서울 拉致소동 주인공

이순복嬢 追放令

3개월내 出國토록

(샌프란시스코지사)

미스서울 납치소동의 주인공 이순복양(28)은 지난 17일 덴버지역이민재판정으로 부터 3개월이내 출국하라는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양은 지난9월14일 동반자 한승희씨가 FBI에 의해 덴버에서 납치혐의로 체포되자 화제가 되었다.

한승희씨는 지난10월 강제출국되었으나 이양은 계속 덴버지역에 머물러왔다.

제시·휠러스덴버이민법정판사는 『이양의 추방이유는 허가없이 체재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에어 캐나다 운항회수 단축

불경기로 승객줄어, CP도 뒤따를듯

에어·캐나다(Air Canada)는 계속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년 1월3일부터 캐나다와 미국을 왕복하는 약 50개 주말노선을 취소키로 했다.

에어·캐나다는 이외에도 토론토-윈저, 토론토-써드버리, 캘가리-밴쿠버에 당일 1회씩 왕복노선을 줄이기로 했다.

21일 운행감축계획을 발표한 에어·캐나다는 지난 10월중 승객수가 1개월전에 비해 20%, 1년전에 비해서는 13% 줄어들었으며, 12월에는 무려 20%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CP Air도 국내외 노선의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P Air의 대변인 마이크·듀크로우씨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부진, 현재 약 2천만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시대의 신문
일간 토론토한국일보
현대생활의 필수품
바르고 빠른 정보는
일간 한국일보에서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㉛

WHAT'S THIS REGARDING?

New York에서 청과점을 경영하는 어느분은 영어를 별로 못한덕(?)에 1년만에 몇만불을 손에 쥘 수가 있었다. 그분이야기인즉, 영어를 못하니까 손님이 찾아와서 불평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Thank You, 만을 연발하면서 친절히 대해주니까 오히려 영어를 몇 마디 안다고 손님과 따지는 사람보다 장사가 더 잘되더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 한 것이지만 영어를 몰라 손해를 입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

요즈음 특히 Korean community(한인 사회)에 미국인 attorney(변호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데 이는 client(소송 의뢰인)이 많기 때문이다.

잘아는 미국인 변호사에게 가끔 전화를 하면 절때마다 비서가 What is this regarding? 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신 겁니까?」라는 뜻으로 특히 전화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온 측에서 왜 전화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What is this regarding?이라고 물어 보면 된다. 「하트씨와의 계약관계 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Regarding my contract with Mr. Hart, 혹은 그냥 My contract with Mr. Hart, 하면 된다.

A: Mr. Smith's office.
B: Hello, this is Tom Jones, May I speak with Mr. Smith?
A: I'm sorry, he's out of the office. May I take a message?
B: No, but maybe you can help me.
A: I'll try, sir. what is this regarding?
B: My contract with Mr. Hart.

A:미스터 스미쓰 사무실입니다.
B:여보세요. 탐 조운스 인데요. 스미쓰씨 좀 바꿔 주세요.
A:미안합니다만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신데요.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B:아니오. 하지만 전화 받는 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A:노력해 보죠. 무슨일로 전화하셨읍니까?
B:하트씨와의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out of the office: 사무실에 없는. regarding: -에 관하여.(=with regard to). contract: 계약. take a message: 전할말을 받아두다.

ex) May I take a message?(전언이 있으세요?)

모악회(전북향우회)

망년파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마련하는 잔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은 물론 전북에 연고가 계신 분은 모두 참석해 주셔서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1982년12월30일 하오 6 시
장 소 : Clinton House (Bloor 아리랑식당 건너편)

모악회
회장 임 철 원
연락처 : 임방식 636-3917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1895

謹賀新年

성균동문 가족들께 신년인사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및 다아오는 새해를 맞아 성균동문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하기를 기원합니다.

1982년 12월 22일

成均館大学校 동창회장 권병구외 임원일동

토론토대학 공대망년파티

이번 한인토론토 공대에서는 즐거운 성탄과 아쉬운 한해를 보내면서 아래와 같이 망년파티를 개최하오니 선배님들과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시 간 : 1982년12월29일 (수) 오후 7 시
장 소 : TATU 1층 카페테리아 (310 Bloor St. W. 연합교회 옆)
회 비 : 5불(1인당)
주 최 : UT 공대

KUTESA 회장 이인석및 임원일동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男便에殺害되는 아내많다

미국 통계 보이 프렌드에 희생도 늘어

작년 희생자2만명중 3분의1

남편에 의해 살인율이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여성희생자의 3분의1은 남편이나 보이프렌드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이같은 경향을 더욱 증가시킬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FBI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작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2만2천5백16명의 희생자중 6.6%에 해당하는 1천1백48명이 남편이나 보이프렌드에 의해 살해당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들에 의해 살해당한 남편이나 보이프렌드는 5.1%에 해당하는 1천1백48명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편이나 보이프렌드를 살해한 여성들은 이들에게 살해당하지 않겠다는 생존본능때문에 이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한 나머지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남편이나 보이프렌드의 폭행희생자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부인이나 걸프렌드의 피살사건들은 남성들의 구타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계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1백80만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보이프렌드로부터 구타를 당하고있다.

그런데 이 구타사건의 주요원인은 경제적 곤란에 따른 가정싸움으로 밝혀지고 있어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많을때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남성들의 자존심은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실직하거나 부인이 일하면 남성들이 자존심을 잃게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실직한 남편을 가진 여성들로부터 더 많은 구타신고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어 경제문제와 구타사건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뚜렷해지고있다.

부인이나 걸프렌드를 살해한 남성들의 일반적인 전형을 밝히기는 힘드나 살인행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타입과 살인무기가 옆에 있기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다.

라틴어 수강생 늘기시작

영어교육 강조이후

온타리오주의 하이·스쿨에서 또 다시 라틴어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각급학교는 영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온타리오주 문교성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어원을 대부분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라틴어과목 수강자는 60년대말 대학 입학시험과목에서 면제되자 현격히 줄어들었다.

토론토시교육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2년간 라틴어등 고전언어과목 신청자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최근 조금씩 라틴어에 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 라틴어교과서가 문법암기위주에서 응용 중심으로 개편된데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교민동정

◆총영(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세일즈맨)=지난 여름 방학을 이용, 토론토를 방문, 좋은 판매실적을 올린 덕분에 브리태니카 본사로부터 정식으로 토론토지구에서 활약토록 발령을 받았다.

미국에서 정치학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인 총씨는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토론토에 머물며 브리태니카 판매로 학비를 벌 계획이다.

연락처는 461-3363, 463-7424.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 0189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봉사 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한 택시운전사가 어느 아가씨와 데이트를 몇번 하고나서 결혼해 줄 것을 청했다. 청혼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직업이 운전사여서 또 학벌이 없어서 싫다고 했다고 한다. 데이트야 직업이고 학벌이고 관계없이 차 타고 다니면서 또는 돈 쓰고 다니면서 놀고 다닐 수 있으니 좋았지만 일생을 같이 사는데야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일 것이다. 물질에 또는 안이함에 점수를 주고 그러면서 놀것은 논다는 아가씨, 그자신에 문제가 있는 여성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운전사청년은 이 경박한 여성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다시는 만나 주지도 않는데 스스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바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잊을 수가 없다는 심정은 진정이다. 곁에서 보기에도 약이 오를 만큼 분한 일이어서 만일 내자식 내동생이란다면 정신차리라고 실컷 야단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느끼는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한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따지기 좋아하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것이다.

많은 청춘남녀들이 짝을 맺지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여전히 원하는조건에 부합되기를 바라고 있는것을 보면 한편 딱하고 한편 부럽기조차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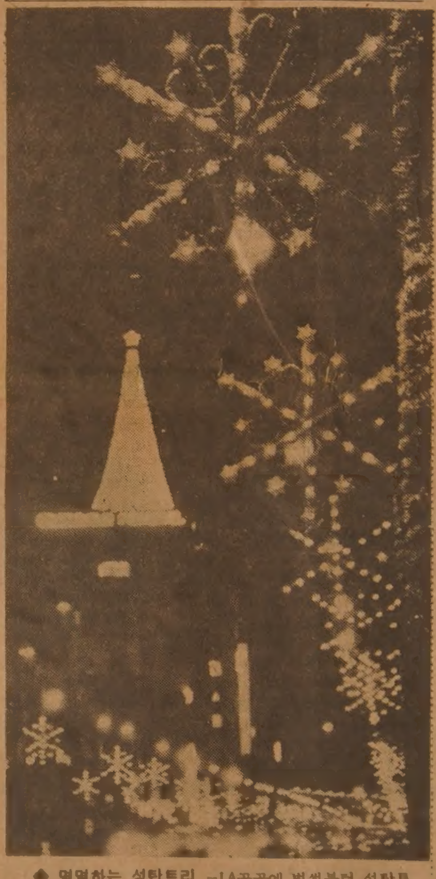
사랑의 감정은 아름다운것

자신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노력하여 무엇인가(원하는것)를 이루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상태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서 자신의 큰 노력이 없이도 어느급이상의 편한 생활을 원하는것이다.

어쩌면 얄밉기까지한 안이를 원하는 그들, 어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져볼수가 있을것인가. 물질에 강하고 노력에 약한, 약은척하면서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하다.

그런 친구들에 비한다면 경박한 아가씨를 잊지못하고 고민하는 이 운전사청년이 얼마나 순수하고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인것이다.

이 청년의 경우 못잊겠다는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물론 잊을수는 있다. 또 이러한 여성과는 결혼이 안되었던 것이 본인의 장래를위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 할수있다. 그보다는 잠시나마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할수 있었다는 감정, 이 마음의 여유가 이 청년에게는 아주 소중한것이다. 남에게 속을 수 있는 순수함, 이거야말로 사랑만이 지닐수있는 마음가짐이라 할수있다. 이 청년에게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을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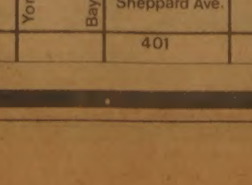
◆ 명멸하는 성탄트리 —LA곳곳에 벌써부터 성탄트리가 점화되어 세모의 기분을 한껏 더하고있다. 매년 화려한 성탄장식을 하고있는 베벌리힐즈 윌셔거리에도 눈송이 거리장식과 함께 높다란 성탄트리가 휘황하게 거리를 비추고있다. 〈박세훈기자 찍음〉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비데오 기게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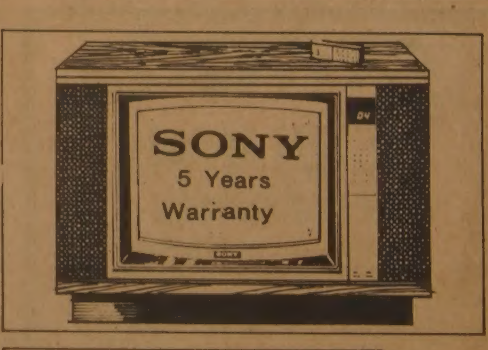
금번 SONY 회사에서는 닥아오는 X-MAS및 연말, 연시 선물품목으로 세계적인 인기리에 판매중인 SONY BETAMAX비데오를 파격적인 최저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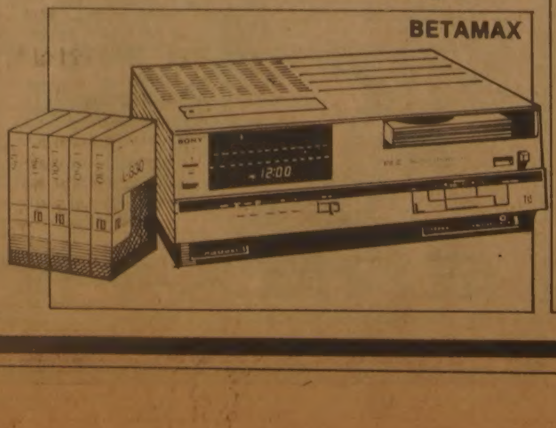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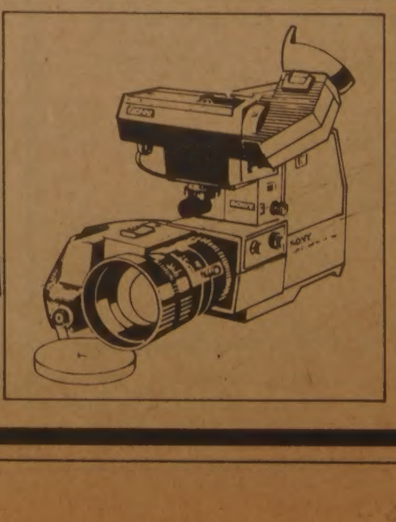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anyo
A.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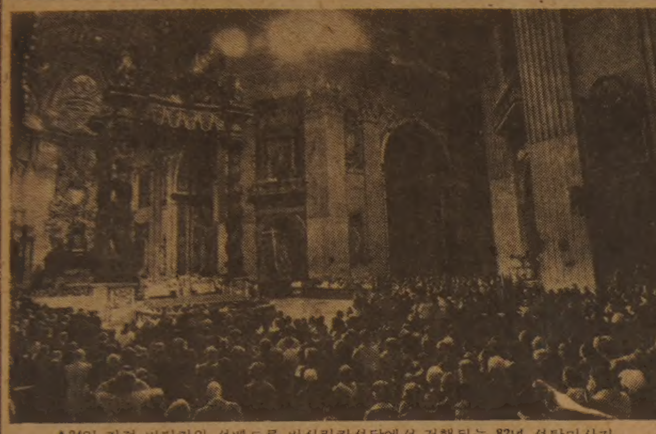






사랑 넘치는 평화, 온 누리에…

이민가정 가정마다 오붓한 행복 깃들기를…



▲24일 자정 바티칸의 성베드로 바실리카성당에서 거행되는 82년 성탄미사가 생방영된다.

<시>

크리스마스

라포르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밤중에 종이 운다.

신념없는 종이 위에
나는 헛되이 펜을 놓았다.

추억이여,
노래해 다오.
교만은 이제 모두 내몸을 떠나
설움으로 살머시 나를 가리더니
다시 내 몸을 휘잡는다.

오!
밤중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하고
노래하는 저 목소리들.

휘황하게 드밝은
저기 성당 안에서
어머니의 다정하고 그리운 목소리
들려온다.

지금은 뉘우침 넘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한밤중의 종이 운다.

세상에 삶을 받아
그 가장 천한데로 떨어진 나.
숨막히는 집안으로 바람이 가져오는
저 떠드럭한 소리,
먼 축제의 가슴을 찌르는
떠드럭한 저 소리.

〈성탄풍습〉 크리스마스·링

한해가 다 기울어가는 12월 한달 동안, 세계의 그리스도교회와 열성신자 가정에서는 인류의 구세주를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는 4주간을 보낸다. 이것을 「대림절(Advent)」이라 부른다.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내림—곧 (1)강생으로 말미암은 인간사회 참여(크리스마스), (2)신자들 마음에 탄생하시는 것, (3) 세상 끝날의 재림(Second Advent)을 뜻한다.

이 대망의 시기 대림절 4주간 동안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전나무등 상록수 가지로 둥근 또아리를 엮어 집집이 현관이나 리빙룸 천정에 매달고, 그 위에 촛대 4개를 얹는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링」이다.

이 또아리의 둥근 모양은 알파와 오메가, 즉 "영원"을 상징하고, 상록잎은 희망을 뜻하며, 초 4대는 구약의 구세주 대망시대 4천년을 나타낸다.

대림 첫주일에 이 크리스마스·링의 초 하나를 켜고, 저녁마다 가족들이 그아래 모여서 성가와 기도를 드리고, 구약 성탄예언 성서를 낭독하며 차분히 마음준비를 한다.

대림 둘째주일부터 일주간 동안은 초 2대를 켜고, 역시 위와 같이 신앙심 행사를 거듭한다.

대림 제3주간은 초 3대를 켜고 매일밤 똑같은 신앙심모임을 거듭한다.

대림 마지막주일(제4주일)은 그리스도 탄생이 문턱에 다가왔으므로 초 4대를 다 켜고

"구세주 빨리오사/어두움 없이 하고/동정녀 마리아에게서/탄생하옵소서…' '등의 성가와 기도·예언서 낭독·강론·묵상등으로 아기예수를 맞이할 마음준비를 마무린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마음쓸 일은, 병든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 따스한 손길을 펴는 일이다.

진심으로 소박하고 겸손한 애덕으로 남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일과여야 하겠다.

크리스마스·링의 첫주일 촛불은 "기다림"을 뜻하고, 둘째 주일 제2촛불은 "찬미"'를 뜻하며, 세째주일, 제3의 촛불은 "기쁨"을 상징한다.

끝으로 제4의 촛불은 "신앙"을 뜻한다.(검둘)

샌터클로즈 할아버지 찾아오는 날

순록을 타고 크리스마스날 찾아오는 빨간옷을 입은 산타클로스할아버지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란트·바바, 즉 「새해의 아버지」이며, 소련인들에게는 「서리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3일간 계속되는 베들레헴에서의 크리스마스축제는 12월24일 예루살렘의 라틴대주교가 이끄는 가톨릭교도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르는 꼬불꼬불한 산꼭대기 길을 화려한 행렬로 장식하면서 시작된다.

이곳에서의 카톨릭은 그리스정교가 1천4백년간 동방에서 세력을 떨쳐 중동일대와 성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19세기에 들어서야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그리스정교가 소유하고 있는 성당의 성모상등은 동양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눈이나 굴뚝이 생소한 더운지방에 있어서는 크리스머스가 이상스럽게 보일 정도이며,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도와 구경꾼만을 위한 한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리스와 불가리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각각의 다른 이름과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어린이들은 가란트·바바(샌터클로즈)가 새해 이브에 양말속에 선물을 채워 넣는다고 알고 있다.

샌터클로즈할아버지의 전통은 중세 동방정교가 오토만·터키의 지배를 받을때 많은 교도들이 루르크족의 지배를 피해 서방으로 이주해 오면서 전래되어진 것이다.

그리스정교도들에 있어서의 크리스마스 만찬도 서방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서방기독교도들은 칠면조요리를 만들어 성대한 음식을 차려먹는 반면, 그리스정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40일간은 금식을 하여 크리스마스날 만찬에는 칠면조는 물론 일체의 육류나 낙농식품은 먹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크리스마스이브에 북을 두드리고, 작은종을 흔들어 소란스런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크리스마스 풍습

아홉가지 그 유래

인류의 명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교의 교내축일 범위를 벗어나, 세계 5대양 6대주의 인종을 초월한 인류의 최대명절로지내는 12월25일. 그풍습의 기원을 살펴봄은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1)"크리스마스"의 뜻

크리스마스(성탄)의 본뜻은 「그리스도의 미사(제사)」(Christes Mass). 풀이하면 "구세주의 제사"라는 중세 가톨릭용어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을 12월25일로 정하게 된 것은, 주의 생일이 겨울 어느날인지 분명치 않아, 로마시대 연중 최대 축제이던 「농신제」(농업의신 축제)를 그대로 성탄날로 바꾸어 기념하게된 것이다.

성찬, 선물교환, 촛불켜기 등의 성탄행사는 농신제의 행사를 받아들인 것이다.

(2)산타클로스

8마리의 꽃사슴이 끌고 달리는 썰매 위에는 붉은옷에 고깔모자를 쓴 기다란 흰 수염의 산타 할아버지가 커다란 망태에 장난감, 초코렛등 어린이용 선물을 가득 담고,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밤)에 온세계 어린이들 꿈길을 누비며 찾아와서 동심의 소망을 채워주는 선물이야기는 아름다운 풍습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약 700년전 소아시아 미라의 주교니콜라오 성인에서 비롯된다.

이 주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으로 자기 교구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특히 성야(크리스마스 이브)에 몰래 불쌍한 집들을 찾아가들창으로 살짝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던져 넣고는 숨어버리곤 하는 "오른손이 하는 선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른 자선이 산타클로스 전설의 기원이다.

17세기에 이 풍습이 네델란드인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가, "산타클로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3)크리스마스 카드

성탄때마다 우편을 통한 우정교환의 풍습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1849년에 생겼다.

영국의 헨리·콜이 화가 요셉·컨돌에게 부탁하여 그리게 한 명함크기의 석판카드를 친구에게 보낸 것이 맨처음 크리스마스 카드이다.

이것이 점차 보급되어, 1870년대 이후 각국의 우편제도가 편리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다.

그 뒤 미국에 퍼져 일반화 되었다.

(4)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나무는 역사 깊은 비화를 지니고 있다.

이 풍습은 8세기 독일에 그리스도교를 전한 선교사 보니파시오 성인이 북유럽의 지혜와 군사를 관장하는 「오딘신」에게 해마다 동짓날 무렵에 사람을 잡아 바치는 악습을 없애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려 강생하신 구세주에게 바치는 물건을 매단 상록수 전나무를 세우게 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후 16세기에 루터가 방안에 나무를 세우고, 촛불을 켰고, 18세기에는 더 발전하여 갖가지 방울과 장난감을 달았다.

이 나무의 풍습은 19세기 전반에 프랑스로 전해졌고, 영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전래됐으며,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건너왔다.

(5)말구유 셋트

〈잔 꽃송이〉의 저자이며 유명한 시 「태양의 노래」, 「평화의 기도」등으로 유명한 동물의 성인—프란치스꼬수도회 창설자 프란치스꼬·아씨지 성인이 1223년에 첫번 크리스마스를 본떠 성탄정신을 자아내기 위해 이태리 아씨지땅 그렛치오 성당에 베들레헴 마굿간을 재현한 모형을 만든 것이 크리스마스 셋트의 기원이다.

성탄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오늘날은 전세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회에서 성탄셋트를 장치하며, 백화점 쇼윈도우나 열성신자 가정에서도 말구유, 아기예수, 성모마리아, 요셉성인, 양치기, 3왕(동방박사들), 양들, 천사, 큰별등의 모형을 배치시킨다.

(6)선물 버선

베치카나 난롯가에 크리스마스때 스타킹을 걸어두는 것은 네델란드의 성탄풍습이 미국에 건너와서 굳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나막신이었다가, 훗날 긴 양말(스타킹)로 바뀌었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집집이 찾아와서 이 스타킹에 선물을 넣어준다고 한다.

(7)크리스마스 씨일

결핵퇴치나 불구아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씨일」운동은 1904년 덴마크 서울 코펜하겐의 우체국장 아이날·홀벨씨가 아동요양원 설립기금을 위해 창안해낸 것이 점차로 세계에 보급되었다.

(8)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애창곡으로 대표적인 것은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고요한 밤, 거룩한 밤」,「징글벨」,「화이트 크리스마스」,「기뻐다 구주 오셨네」,「루돌프 사슴코」,「북치는 소년」등을 꼽을 수 있다.

명곡 「고요한 밤」은 1819년 오스트리아의 요셉·모어 신부가 가사를 짓고, 프란츠 그룹베가 작곡한 것이다. 「그 어리신 예수」는 종교혁명가 마르틴·루터가 5명의 아들과 함께 성야(크리스마스·이브)에 트리장식을 하다가 아들들이 성탄노래를 지어달라고 조르자 지어낸 노래로 전해지고 있다.

(9)성탄요리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교회행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더녀로 즐기는 요리에는 영국과 미국의 7면조, 미국의 성탄케익, 프랑스의 로스트 치킨과 장작모양의 케익인 「부스·드·노엘」, 오스트리아의 양고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음식이다.

스웨덴서는 식구들이 모여앉아 "멍킹송"(국물 찍어먹는 노래)을 합창하면서 햄이나 소시지를 먹으며, 빵조각을 끓는 남비속 국물에 찍어서 먹는 풍습이 있다.

벨기에에서는 밥상에 사과를 파란 종이로 싸든가, 큰 감자를 빨간 종이로 싸서 올려놓고, 그 위에 초를 얹으며, 밑에는 솔가지를 금실로 얽어맨다. 그리고 나무도막 반쪽을 얹어놓은 것같은 모양의 케익을 나누어 먹는다.

(세바스티안)

인류 최대의 크리스마스 풍습

아름다운 정서·예술성

성탄맞는 마음가짐, 불우이웃에 온정손길

▲말썽난 크리스머스트리—나수아시민들은 시청앞에 세워진 예수탄생크리스머스트리 제거소송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유인즉 시정부의 파잉종교참여및 시예산낭비라고. 〈나수아, 뉴햄프셔 …〉

축 성탄

일년간 본 후원회를 적극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회원 그리고 교포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성탄과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일년간 본 후원회에 실적을 알립니다.

수입내역

★총합계 : $9,060.24

정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

전정인 $50.-	유용근 $75.-	유윤자 $50.-
이승용 $25.-	김학규 $50.-	김형호 $50.-
이상호 $25.-	이인식 $50.-	정계화 $50.-
구상회 $50.-	박종철 $50.-	김인철 $50.-
김희삼 $50.-	원종성 $20.-	이병용 $50.-
김 $50.-	이재선 $50.-	김충철 $50.-
최동주 $50.-	김 홍 $50.-	손정현 $50.-
원종필 $50.-	김 열 $50.-	이외식 $50.-
Mrs.원 $50.-	송종광 $50.-	
정의영 $50.-	김병국 $50.-	계: $1,445.-
윤경숙 $50.-	박윤심 $50.-	

찬조금 Total : $6,907.06

제일장로교회 유년주일학교	$137.31
장학진	100
이순자	50
제일장로교회학생회	118
제일장로교회(목사 김용출)	200
한인합창단(박재훈 목사)	300
OK 오토바디(김희삼)	137.31
나이아가라한인교회(권순국)	300
임마누엘교회 노아회	100
미도파 백화점(장추신)	150
센추리넝동(이인식)	397.50
스카이웨이계산기(김인환)	450
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총고등부	92.09
최춘배	300
B.J. Shim(펜티코스탈 청년회)	100
사랑의 어머니회(대표 이정영)	300
김 홍	50
손정현	50
이외식	50
영락교회 남신도회(이광한)	100
안충훈	200
김병국	50
유윤자	300
신금순	25
유은남	25
한인장로교회 청년회	100
무명씨	300
바그닷드 연예인(김욱란의A팀·김무경의B팀)	US800
유룡진	US100
신중화	300
한인중고등부 기독학생연합회	200
맹인후원회 회장(원종필)	300
제일장로교회 여전도회	200
호남향우회(장영대)	300
김성호	30

구분		학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실명원인	비고
부산맹아학교	초등부	2	정민호	남	75.1.22	시신경위축	불빛 봄
		″	박종일	″	75.5.16	백내장	약시
		″	송영두	″	74.7.1	각막염 및 백내장	불빛 봄
		″	박태운	″	63.10.18	뇌막염	
		″	김경숙	여	70.7.15	뇌신경층	
		4	윤성호	남	69.3.16	불명	약시
		5	김병수	″	66.2.2	백내장	지난해좌안 수술성공 우안 수술요망
	고등부	1	김선하	″	61.2.1	백내장	약시
		2	이상규	″	59.5.2	선천성	
청주맹아학교		6	이영남	여	63.10.11	양안선천성 안구진탕증	

82년도 사업실적

(1) 개안수술 10명
(2) 장학금 지급
★이은미: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2학년 맹인
★김경하: 신경여상 3학년 맹인자녀
★양회성: 단국대학 특수교육과 1학년 맹인
(3) 캐나다국립맹인도서관 기재구입보조
(4) 대한예수교 장로회 맹인선교후원회 점자성경보급(맹인용)
(5)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맹인선교후원회와 본후원회 자매결연
(6) 캐나다 연방정부에 자선단체등록 완료

지출내역

코리아저널	$219
민중신문	195
한국일보	250
통신비(한국전화 김선태·장용준)	73.75
킹렉스 한인장로교회 헌금	25
동부한인장로교회(김선태목사)	40
제일장로교회 봉헌예배 헌금	40
도장	27.82
P.O.Box 사용료	68
일반사무용품	50
변호사 수수료	380.78
은행 써비스	10
송금등기 수수료	6.95
CNIB 카나다국립맹인도서관 기재기증	1,000
우표및 봉투	15
호남향우회(장영대) 반납	300
개안수술 10명	3,000
김선태 목사님 접대비	52
점자성경 보급지원금	300
장학금	1,700
Total :	$7,753.30

성명: ________ 영문: ________ 전화 R: ________
주소: ________ B: ________

1. 본인은 귀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아직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으나 성금으로 귀 후원회 사업을 지원코저 합니다.

연회비 : 50불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장 귀하

◆보내실곳: Ontario Fundation for the Korean Blind Box 70 Postl Station "B" Toronto Ont. M5T 2T2 전화 : 593-8943

금액: ________
본인성명: ________

알고 실천하면 세금 덜 내

몰라서 혜택 못받으면 손해

이해가 다 가기전에 개인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끔 합법적 조처를 취하자.

지난 13개월간 연방정부는 두개의 예산안을 내었고,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하며 또 오는 31일로 마감되는 주택구입자 보조계획이 포함된 온타리오 정부의 예산 때문에 세금보고는 더욱 복잡해졌다.

◆개인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금(RHOSP) 불입금은 연간 최고액 $1천까지 금년 과세소득에서 감면된다. 이 저축금은 이제껏 캐나다에서 단독 개인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평생 한번만 허용된다. [보험회사, 은행등 금융기관서 취급].

이 저축금의 총저축액은 최고 1만달러이다. 부부가 별개의 저축계획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부부중 한 쪽이 집을 가졌거나 또는 금년이나 작년에 집을 공동소유했을 때는 금년에 감세혜택이 없다. 곧 집을 살 사람은 83년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이 저축금 계획에 따라 83년도의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다.

◉31일 이전에 집을 사기로 계약했으면 3천달러의 면세무상지원금과 온타리오주정부의 5천달러 무이자 융자를 받는다. 무상지원금은 신축주택구입자 또는 헌집이라도 집을 처음 사는자에게 지급되며 무이자 융자금은 신축주택구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무이자융자혜택은 오는 4월말까지 연장실시된다.

◉금년에 71세가 된 사람은 올해안으로 은퇴저축금(RRSP)을 분할지불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치 않으면 은퇴저축금에서 받은 금액이 모두 소득이 되어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한다.

◉1월초 결혼 예정자는 금년내로 앞당겨 결혼할것. 내년봄 세금보고 때 결혼자의 최고 3,110달러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수입도 보고해야한다. 따라서 결혼후의 배우자 수입이 적도록 12월에 결혼하고 혜택은 최대한도로 받는다.

◉누구든지 이자, 주식배당, 또는 부동산투자등으로 얻은 소득중 최초 1천달러는 과세소득서 제외된다. 82년도에 이 혜택을 전액 받지 않은 사람은 금년안에 캐나다저축채권(CSB)등을 현찰로 바꾸어 1천달러 공제혜택을 다 받도록 한다.

상기 1천달러 혜택을 다 받았고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수준이 낮은자는 12월중에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이 앞으로 12개월간 이자소득을 갖도록 하면 83년도 세금에서 이득을 본다. 이러한 소득균등화에 의한 이점은 가족들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할때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감세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가족내 융자. 소득균등화 비용은 연말전 지불할것

가족간 융자는 무이자가 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잘 문서화되지 않으면 세무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간단한 방법은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Promissory-note) 용지를 사용하는 것.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본 주식 또는 다른 재산을 연내에 처분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손실액의 절반은 자본 투자수입에서 공제되며 2천달러까지는 다른 소득액에서도 공제된다.

그렇게해도 손실액 전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못받으면 81년도 세금보고 수정안(특별양식이 있음)을 제출, 82년도와 똑같은 액수의 혜택을 요구한다.

기업체들은 이 분야에서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즉 손실액의 절반을 회사영업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등록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순소득(넷·인컴)의 20%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특정년도의 소득이 지난 4년간의 평균소득보다 월등히 높을 때 이를 평준화, 감세해주던 제도는 금년부터는 소득후치제도(Foward Averaging)로 변경됐다. 이는 특정년도의 소득이 많으면 이중 일부를 다음해의 소득으로 돌리고 그때의 예상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낼수있는 제도이다. 다음해 소득이 예상보다 적으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 제도의 나쁜점은 다음해로 미룬 소득분에 대해서는 50%라는 최고율의 세금을 선납하는 점이다. 이때문에 이제도가 반드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큰 목돈 소득이 생겼을때는 세금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상책.

◉캐나다영화산업, 오일·개스 개발자금, 연립주택(아파트먼트, 듀프렉스)건축등 세금우대대상에 투자하면 감세의 이득이 있다.

◉위자료, 자녀양육비, 수업료, 협회등 자기직업분야 단체회비, 타 지불해야할 중요 경비가 있으면 연말전 지불할 것. 82년 세금대상서 공제되니까.

◉기업체의 매니저를 겸한 주인이 받는 임금과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기계등 새 장비를 구입하려면 금년내에 지출할 것. 회계년도끝이 연말이 아닌 회사는 연도말 이전에 사면 감가상각(디프리시에이션)의 혜택을 받는다.

▼ 크리스머스트리 점등식—뉴욕 록펠러센터에 세워진 대형크리스머스트리에 수천개의 오색등불이 켜지고 성패트릭성당성가대의 노래도 함께 울려퍼졌다. 트리주변 건물에 있던 사람들도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려다보고있다. 〈뉴욕— 〉

금융회사및 은행이자율

아래 이자율표는 12월17일자 현재이며 예고 없이 변동될 수도 있다.

TRUST COMPANIES	TERM DEPOSITS Minimum Deposit	30-59 DAYS	60-89 DAYS	90-119 DAYS	CERTIFICATES/ INTEREST PAID ANNUALLY Minimum Deposit	1 YR.	2 YRS.	3 YRS.
Bayshore Trust	10,000	—	10¾	10¾	5,000	10¾	10¾	10¾
Canada Trust	5,000	9¼	9¼	9½	1,000	11	11½	11½
Counsel Trust	10,000	—	10	10½	1,000	12	12	13
Fidelity Trust	5,000	10½	10¾	10¾	500	11¾	11¾	12¾
Financial Trust	5,000	10	10	10	1,000	11	11	11
First City Trust	5,000	10	9¾	9¾	500	11¼	11½	12½
Montreal Trust	5,000	9¼	9¼	9¼	1,000	10¼	11	12
Morguard Trust	10,000	10	—	—	1,000	11½	11½	12½
National Trust	5,000	9½	9½	9½	1,000	11	12	12½
Premier Trust	5,000	10	10	10	100	12	12¼	12
Royal Trust	5,000	9	9	9	1,000	10¼	11	10¾
Security Trust	5,000	10½	10½	10¼	1,000	11¼	11	11

CHARTERED BANKS	TERM DEPOSITS Minimum Deposit	30-59 DAYS	60-89 DAYS	90-119 DAYS	CERTIFICATES OR TERM DEPOSITS INTEREST PAID SEMI-ANNUALLY Minimum Deposit	1 YR.	2 YRS.	3 YRS.
Can. Com. Bank	5,000	9½	9½	9½	5,000	—	—	—
C.I.B.C.	5,000	9	9¼	9½	1,000	9½	9¼	9
Continental Bank	5,000	9¼	9½	9¾	1,000	10	10	9¾
Mercantile Bank	5,000	9¾	9¾	9¾	5,000	10	10½	10½
Bank Of Montreal	5,000	8¾	9	9	1,000	9¼	9¼	9¼
National Bank	5,000	9	9¼	9½	1,000	9½	9½	9½
Bank of Nova Scotia	5,000	8¼	8¼	8¼	1,000	9¼	9¼	9¼
Royal Bank	5,000	9	9	9	1,000	9¼	9¼	9¼
Toronto Dominion	5,000	9	9¼	9½	1,000	9¾	9¾	9¾

DEBENTURES INTEREST PAID ANNUALLY

MORTGAGE LOAN COMPANIES	Minimum Deposit	1 YR.	2 YRS.	3 YRS.
Canada Perm. Mtge.	1,000	10½	11	11½
Continental Bank Mtge.	1,000	11	11	10½
Greymac Mtge.	500	10	—	—
Bank of Montreal Mtge.	1,000	10½	11¼	11¾
Standard Loan	500	11¼	12¼	12¾

All rat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強盜는 새옷을 노린다

警備회사서 밝힌 당신의安全을 지키는법

실업자가 늘고 경기가 침체될수록 범죄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런때일수록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가 되지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테네시 멤피스에 있는 경비회사인 가즈마크회사 회장 아이라·리프만(42세)은 최근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옥불법침입절도범과 노상강도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있다.

다음은 유에스·뉴스지에 실린 문답식 인터뷰내용을 우리말로 간추려 옮긴 것이다.

▲문—FBI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전반기에 미국의 범죄율이 5% 떨어졌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보다 범죄발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것을 뜻하는가?

◉답—FBI의 범죄통계는 지방경찰국이 제공한 범죄통계를 토대로 한것이다. 이 지방경찰국들은 금년처럼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통계를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FBI의 범죄통계가 설혹 정확하더라도 경찰당국에 보고되지않은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보다 훨씬 적은 범죄통계가 되고있다.

휴스턴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서는 범죄가 오히려 격증하고있다. 휴스턴은 금년도 전반기에 범죄가 17.7% 증가했었다.

▲문—가옥불법침입절도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은 어딘가?

◉답—모든 지역을 망라하고있다. 특정한 주택은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보석절도는 값비싼 주택들을 노리고있다. 비교적 집값이 덜비싼 지역에서는 틴에이저들이 절도행위를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절도들은 훔칠 것이 많은 부유한 교외지역을 노리는것이 보통이다.

▲문—가옥불법침입절도 예방책은 무엇인가?

◉답—노인일 경우 빗장자물쇠를 달고 방문객을 들여다보는 구멍을 만드는 것이 좋다. 빗장자물쇠값은 약50달러. 또한 일단유사시에 도움을 청할수 있도록 전화기를 침대곁에 놓아둔다. 도둑이 전화선을 절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웃과 무선 워키-토키장치를 갖추고있는 것이 좋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면 방범에 도움이 된다.

여유가 있으면 도난경보기를 구입한다. 약5백달러만 지불하면 이웃까지 크게 울리는 경보기를 살수 있다.

약2백50달러만 더 지불하면 도난경보회사와 연결되어 경찰에 곧 신고되는 경보기를 구입할수 있다.

도난경보기의 값은 2백달러에서 1만달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며 품질도 다르다. 그러므로 구입전에 신중히 비교를 하는것이 좋다.

보석, 중요한 서류, 미술품, 기타 귀중품들을 은행과 다른 전문적 보관소에 맡기면 안심할수있다. 문에 귀중품은 보관소가 맡고있다는것을 시사하는 스티커를 붙여 놓을수도 있다.

▲자동차는 항상 문을 잠가놓는 것이 가장 좋은 도난방지책이다.

집주위울타리…빗장자물쇠 설치도
전등켜놓고 電話機 침대옆에
개길러 가옥침입절도범 막고

▲값비싼 옷이나 보석등은 노상강도가 노리는 것이다.

▲문—집안과 주변에 설치한 전등은 방범에 특별한 도움이 되는가?

◉답—전등은 중요한 방범책이다. 돈을 많이 들이지않고도 설치할수 있다. 집주위에는 반드시 전등을 설치해야 한다. 밤에 자동적으로 켜졌다가 날이 밝으면 꺼지는 광전관전등을 살수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외등은 아주 밝은 나트륨등이다.

오랫동안 외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내등도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타이머장치를 구입하면 좋다.

▲문—총기소유가 좋은 도난방지책인가?

◉답—총기소유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러므로 총을 구입하려면 좋은 총을 구입하고 다루는 법도 잘 알아야 한다. 나는 총기소유를 좋은 방범책으로 보지는 않는다.

▲문—가옥침입자에 고압전기충격을 주는 새로개발된 장치는 방범효과가 있는가?

◉답—이같은 장치는 대부분 확실한 테스트를 거친 것이 아니다. 만약 침입자가 총을 가졌으면 전기충격장치나 최루탄은 상대가 안된다.

▲문—효과적인 자동차도난방지책은 무엇인가?

◉답—자동차에 열쇠를 남겨놓은 채 내리지말고 자동차문을 반드시 잠가놓아야 한다.

▲문—절도범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답—실직하고 생계의 길이 막힌 절망적사람들이다. 전문적인 절도범들은 요즘 은행강도와 같은 책은 하지않고 보다 교활한 접책을 저지르고있다.

보석등 귀중품은 지니지 말라
犯法者엔 저항하면 위험 따라

▲가옥침입절도범과 노상강도대비책을 말하는 경비회사회장 아이라·리프맨.

▲문—노상에서 강도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누군가?

◉답—새옷을 입었거나 값비싼 시계 혹은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다.

▲문—전형적인 노상강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답—15세—29세사이의 젊은 실업자들이다.

▲문—노상강도에 저항하는 것이 현명한가?

◉답—순순히 요구대로 돈이나 귀중품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 무장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고 또한 폭행을 가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하면 위험하다.

신년 인사

크리스마스와 세모를 앞둔 이때 하시는 사업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선생님이 늘 아껴주시는 YMCA는 제2회 신년인사교환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다과와 음료수도 뜻있는 분의 협조로 마련합니다.

가족동반 환영 합니다.

—아 래—

때 : 1982년1월1일(토) 오후2시~4시
곳 : West End YMCA3층 강당 (931 College St.)
주최 : 토론토한인YMCA
후원 : 한인회·실업인협회·와이즈멘즈클럽(알파및 베타)·민중신문사·코리언저널사·교역자협의회·장로연합회·뉴코리아타임스 한국일보사

토론토한인YMCA이사장단
전택균·김순창·구상회
총무 김 창 열 드림.

새해복많이받으세요

615 BLOOR ST. W. 고향의 맛 서울하우스식당

세네카 College 년말파티

장 소 : EMBERS 레스토랑 781 Warden Ave. 에그린튼 남쪽 sears 앞
일 시 : 1982년12월29일(수) 오후7시.
※정장을 요함. Cash Bar 이용
연락처 : 회 장 이병하 431—9283
부회장 김정수 368—1975

※경품 추첨함 (1등 $200이상등 푸짐한 선물)

한인세네카 동문회

〈성탄동화〉

소년의 낡은 등잔

제노베파·아젤

무척 가난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없으므로 어린 몸으로 일을 하여서 겨우 먹을 걸 얻어먹고 살았어요.

이 가난한 소년도 추운 겨울밤, 동쪽 하늘에 뚜렷이 소아오른 큰 별을 보고예수님이 나신 걸 알았어요.

동네사람들이 이것저것 선물을 가지고 예수아기를 찾아가는 걸 보고 부러운 마음 굴뚝같았어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진짜임금님인 분 한테로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하였고, 아무것도 선물로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가 보고 싶어서 못견디었어요.

밤에 짚이불에 들어가 자려고 하여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부탁해 보았으면…)

그러나 매일매일 어른네 집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사람들한테 말한대도 철떡기 어린이의 말에 귀를 귀울여줄 사람도 없을 건 뻔한 일이었어요. 매일같이 주인아저씨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세끼밥은 먹여주지만 돈받는 것도 없고, 짚더미속에 잠자는 것하고 누더기옷 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난뱅이 아이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아니해요. 도리어 구멍이 숭숭난 누더기옷 입고, 발이 두개나 들어갈만한 낡은 어른구두를 덜덜 끌고 가는 걸 보면 놀려주는 게 일쑤였어요.

울고 싶은 걸 꾹 참고 마지막 용기를 다 짜내어 수호천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이튿날도 언제나와 똑같았어요. 일하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음 일을 시키고, 또 다음 일— 자꾸만 일해야 했어요. 재미없었지만 저녁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주인집에서 잠자코 저녁밥을 먹었어요.

밤중에 누가 "똑똑!" 문 두드리고 있겠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등잔불 들고 문밖에 서있었어요.

"아기양 한마리가 없어졌어. 날쌔고 귀여운 그 아기양이 말이야. 너라면 이내 찾아낼지도 모르겠어. 이 등잔불을 들고 좀 찾아주지 않겠니?"

소년은 끄덕이고 밖에 나갔어요. 시커먼 어두움 속에서 자꾸만 불러보았어요. 산속 오솔길이랑 숲속 길이랑 모조리 뛰어다녀 2시간 이상이나 찾아보았어요.

문득 뒤에서 "허허!" 가쁜 숨소리가 났어요. 돌아다보니 바로 찾고 있던 그 귀염둥이 아기양이 별빛에 조그만 눈동자를 반짝거리면서 줄줄 따라오고 있지 않겠어요.

소년은 아기양을 안아서 어깨에 올려 놓았어요. 양털로 어깨랑 등어리랑 따스해졌어요. 그리고 온 하늘 별빛 총총,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지 모르겠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무척 기뻐했어요.

"참 고맙다. 상을 주고 싶은데 무얼 원하니?"

소년은 이내 대답했어요.

"이 등잔불을 주세요."

"이 등잔을 갖고 싶다고? 이런 걸해서 뭘하겠니? 낡은 고물이고, 녹슬었어.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등잔이었댔어."

"난 이게 아주 좋은 등잔이라고 생각해요."

"정 갖고 싶으면 주겠어. 잘 자거라."

낡은 등잔을 주고 그 아주머니는 자기네 집으로 갔어요.

언제나 이 소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슨 힘에 이끌려 가는 것같았어요.

지금도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저절로 예수아기 있는데로 가는 사람떼 속에 끼어들었어요. 잠자코 걸었어요.

"애야, 이 밤중에 어디로 가니?"

누가 물으면 짤막하게 대답했어요.

"이 등잔불이어요. 거기는 등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소년의 대답에 길가던 사람들이 한 바탕 크게 웃어댔어요.

"이런 낡아빠진 등잔을 선물로 가져간다고? 더구나 초도 다 타서 금새라도 꺼질 듯이 깜박거리는데…'

그 말을 듣고보니 소년은 덜컹! 근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종종걸음, 빨리 갔어요.

드디어 마굿간까지 다 왔어요. 방안은 어둑어둑하고 따스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이 들어서서 있기 때문에 말구유 앞으로 나서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소년은 입을 꼭 다물고 고개 떨군체 머뭇걸음으로 겨우 말구유 옆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듯 이 등잔을 살그머니 내려 놓았어요. 낡아빠진 서리유리 속에서 쬐그만 초동강이가 깜박깜박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이것 밖에 없어. 난 가난뱅인 걸. 하지만 이건 내가 일해주고 번 거야"

일부러 투박한 소리를 나직이 뱉았어요. 바로 이 때! 환하게 방안이 밝아졌어요. 구유속의 지푸라기마다 반짝 반짝 빛났어요. 저편 구석에 웅크리고 섰던 당나귀의 눈도 소의 몸뚱이도 모두 모두 반짝였어요.

어쩐지 그곳은 모두들 노을질 무렵의 여름저녁 모양 가슴이 흐뭇했어요.

예수아기도 기분 좋은지 작은 다리를 파닥거리고 있어요. 마리아님은 방실방실 말하셨어요.

"참 밝고 따스해졌네."

소년은 눈이 똥그래져서 한번 더 제가 가져온 등잔을 굽어보았어요. 그건 어느새 멋진 새 등잔이 되어 환하게 빛을 내뿜고 있지 않겠어요!

소년은 끄덕끄덕, 알만했어요. 분명히 간밤에 수호천사한테 부탁했었으니까.

수호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술 좋고 친절한 등잔장수에 틀림없을 거예요.

▲백악관의 애니—워싱턴주재외교관가정어린이들을 위한 백악관의 크리스머스파티에서 뮤지컬영화「애니」의 스타 아일린·퀸양이 낸시·레건여사에게 노래를 들려주고있다. 낸시여사 바로뒤에 한복을 차려입은 한국어린이의 모습도 보인다.〈워싱턴

男子 年俸8만6천弗

봉급으로 환산하면… 家庭의일 職場

女子 5만1천弗꼴

夫人경우 자녀상담·유모역 週173시간 시장 보기·세탁·요리사역도

男便경우 가정·자녀보호 週144시간 플러밍·목수일에까지할애…

전형적인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을 직장봉급으로 환산하게되면 얼마나 될까.

지난 1978년 시카고의 변호사 마이클·민튼은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도록 한 연구소에 의뢰, 지금시세로 따진다면 여성의 가사는 연봉 5만1천29달러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얻어냈다.

민튼변호사는 이자료를 이혼소송법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 아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는데 이에대해 즉시 1만2천여명의 회원을 갖고있는 미국남성이혼협회(ADAM)는 남편의 가정일을 8만6천1백15달러 12센트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환산한 연구서를 제시했다.

『남편이 가정에서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내보다 70%가 더많다』고 ADAM의 회장인 루·필쩌는 주장했다.

아내의 가사는 주급으로 따진다면 9백81달러33센트인데 그내역을 살펴보면 자녀들에대한 심리상담에 주5시간(시간당:50달러 18센트)을 소요, 2백50달러90센트에 해당하는 유모역으로 주1백68시간(시간당:1달러1센트)을 소비하여 1백86달러48센트, 가정상담자역으로 1백12달러90센트, 요리사역으로 60달러, 시장보기로 48달러36센트 등으로 할애되고있다.

한편 남편은 주당 1천6백56달러6센트에 해당하는 가정일을 하는데 가정의 안전보호로 주72시간(시간당:15달러)을 소비하여 1천80달러, 자녀보호에 주72시간(시간당:1달러12센트)을 할애하여 80달러64센트, 플러밍으로 44달러10센트, 목수일로 37달러20센트 등으로 환산된다.

어느 주일아침(12월)

원 종 필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장)

주일아침 창밖의 세상은 온통 백색의 물결로 출렁이고, 어제까지도 앙상하게 겨울을 보낼 것 같던 나무가지들을 소담한 하얀 눈꽃으로 단장하여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낭만을 즐기기엔 웬지 마음과 몸이 움츠러 들고, 꽁꽁 얼어 붙기만 한다.

안방 TV에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특별쇼가 한창이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캐럴이 흘러 나오고, 가두 사점에는 한해의 따뜻한 정이 담겨갈 선물꾸러미가 선을 보이고 있다.

12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날이 이토록 고맙고 흥겹고, 더러는 사람을 들뜨게까지 만드는지? 해마다 찾아오는 날이지만 해마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인다.

성탄파티, 망년회, 신년회, 무슨 파티등 많은 종류의 모임으로 흥청거리며, 12월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정말 모두가 빠짐 없이 다 그런 분위기에 휘말려 들뜨게라도 된다면 오죽 좋으랴마는 바로 우리 이웃 가운데는 아직 이런 흥겨움이 차단되어 있고 차단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차단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곳없어 양로원에서 떨고 계실 우리에 어버님들, 고운 눈망울이 젖어 있을 우리의 어린 고아들, 살속을 파고 드는 쌀쌀한 겨울바람을 여미지도 못한채 거리에서 피리를 불며 구걸하는 맹인들—이 모두가 차단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다.

12월!

한해의 마지막달에 아무리 경황이 없고, 바쁘고 갈피를 차리기 어렵다 해도 사람의 손길을 펴며 자선남비에 얼마간 분수에 맞는 추렴을 하고 사는 사회적 배려가 이 거룩한 달에 나마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듯 사람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생활이 더 부유해져도 마음은 더욱 가난하게 가지고 말이다.

그럼으로 움츠러들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과 몸이 따스하게 펴지며, 12월에 성스러운 낭만을 모두 함께 즐기는 사회풍조가 되었으면 한다.

Merry X-mas & Happy New Year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533 2361

"먹을것좀 주세요" 겁도없이…

▲먹이찾아 주택가로 뛰어든 뿔사슴들—풀한포기 안남기고 온산이 하얗게 뒤덮이자 허기에 지친 뿔사슴들이 먹이를 찾기위해 주택가로 모여들었다.〈앵커리지—AP〉

X-머스 파티를 달콤하게…

「슈가쿠키」 만드는법

"어떤모양도 만들수있다"

즐거운 크리스머스.

진저브래드로 고드름이 잔뜩달린 아름다운 겨울집을 만들고, 반짝반짝 빛나는 슈가쿠키로 예쁜종, 귀여운 곰을 만들고, 여기에 색깔도 고운 후룻트·케익을 곁들이면 온가족이 달콤하고도 즐거운 하루저녁을 보낼수 있을 것이다.

이중 슈가쿠키는 만들기도 간편해서 자녀들도 레시피만 있으면 손쉽게 구울수 있는 것.

조영근씨부인 조동희여사가 들려주는 슈가쿠키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재료—마가린 1컵, 슈가 3분의2컵, 라이트·콘·시럽 반컵, 레몬쥬스 1ts, 계란1개, 밀가루 3컵반, 소금 4분의 1ts, 컬러드·슈가(colored sugar).

▲만드는 법—커다란 그릇에 마가린, 슈가, 콘·시럽, 레몬쥬스, 계란을 넣어 중간속도로 잘 섞일때까지 젓는다. 점차 밀가루와 소금을 넣으면서 계속 잘 젓는다.

오븐을 3백50도로 미리 덥힌다.

테이블이나 커다란 쟁반의 표면이 밀가루를 얇게 뿌리고 잘섞인 반죽을 3분의1씩 떼어 8분의1인치 두께로 민다.

별모양, 종모양, 곰모양, 나무모양등 원하는 대로 자른다. 곰의 경우, 갈색곰을 만들고 싶으면 초콜렛파우더를 조금 넣는다. 기름기가 없는 쿠키·쉬트에 갖가지 모양으로 잘라진 반죽을 놓고 그위에 컬러드·슈가를 뿌린다.

오븐에서 5분내지 7분또는 표면이 아주 연한 갈색으로 될때까지 굽는다.

위의 재료에서는 약1백20개의 쿠키가 나온다.

▲조동희여사가 만든 산타클로스 크리스머스케잌장식과 슈가쿠키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GOLDEN CHINA 新金國酒家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통통)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파티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코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가족과 즐기는 성탄휴일
연예행사와 TV프로가이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휴일을 기해 전 가족, 특히 어린이들이 즐길수 있는 다채로운 연예프로를 소개한다.

65명이 출연하는 내셔널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비롯하여 〈백설공주〉등 흥겹고도 유익한 연예프로 및 시간·장소는 다음과 같다.

◆국립탭무용단이 보여주는 "Oliver Batton is a Sissy."

▲Oliver Button is a Sissy

캐나다 국립 탭무용단이 제작한 〈Oliver Button is a Sissy〉는 제목이 말해주듯 여자처럼 숲속을 홀로 걷거나 줄넘기 혹은 춤추기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겪는 수난(?)을 소재로 한 90분짜리 춤극이다.

세인트·로렌스:센터에서 크게 히트, 이번에 재공연되는 이 작품의 게스트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샤론·루이·브램〉, 〈브라이언·맥키〉, 〈바바라·해밀튼〉, 〈두그·챔버린〉등이 출연한다.

장소는 토론토대학의 맥밀란극장(Queen's Park Crescent W.)이며 22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다. 티켓문의는 363-5707.

▲Alligator Pie

캐나다의 동화작가 데니스·리가 쓴 〈Alligator Pie〉를 원작으로 한 이 연극은 CBC-TV에서도 두번씩 방영된 적이 있다.

12월26일부터 1월2일까지 계속되며 16 Ryerson Ave.의 Theatre Passe Muraille에서 상연된다. 전화문의는 363-2416.

▲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

케런·케인과 프랭크·어거스틴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21일의 공연을 중심으로 1월21일까지 모두 15번 공연된다.

발레장소는 오킹센터, 티켓은 $6.50~$14, 티켓문의는 766-3271이다.

▲Really Rosie

팝·뮤직 작곡가로서 거목인 캐롤·킹의 음악과 동화그림작가들의 그림을 섞어 모리스·센닥이 어린이용 뮤지칼로 엮은 이 작품은 1980년 뉴욕에서 크게 히트했었다.

6세이상의 어린이에 적합한 이 뮤지컬은 24일부터 1월9일까지 하오 2시와 저녁 8시 각2번씩 공연된다.

극장인 영·피플즈·디어터(Young People's Theatre)는 165 Front St. E.에 있으며 티켓은 어른 $9, 어린이 $5, 전화 864-9732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글라주노프의 발레조곡과 〈4계절〉에서의 인물을 4명의 남성무용수와 6명의 여성무용수들이 묘사해 내는 이 발레는 시티발레단의 출연으로 26일부터 1월1일까지 하버프론트에서 공연된다.

티켓은 성인 $5, 어린이 $3이다.

▲백설공주(Snow White)

어린이들에 너무도 유명한 백설공주는 26일부터 31일까지 알라딘극장(Aladdin Theatre)에서 상연되는 무용·음악극으로 브라말리아극단 작품이다.

매일 하오 2시에는 라임·라이트극장에서 공연된다.

티켓은 라임·라이트극장(2026 Yonge St.) 전화 482-5200.

▲인형극(The Muppets Show)

26일부터 2월6일까지 온타리오과학관(Science Center)의 Main Theatre에서는 〈The Art of the Muppets〉가 공개된다. 입장료는 성인 $2, 어린이 $1.

과학관의 주소는 770 Don Mills Rd. 전화: 429-4100.

▼흰색의 여왕과 앨리스—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흰색의 여왕으로 나오는 에바·르·갈리엔은 84회생일을 불과 한달앞둔 노익장을 과시한다. 50년전 이역할을 처음 맡았던 갈리엔은 철사줄에 의지해 무대위를 날아다니며 앨리스로 분한 케이트·버튼과 환상의 세계를 펼친다. 케이트는 리처드·버튼의 딸. 〈뉴욕— 〉

PAY-TV
2월1일부터 광고없고 검열없는 프로 방영

거리를 다니노라면 큰 광고간판에 남성미의 상징인 버틀레이놀즈, 경우 폴뉴만, 인기상승 일로의 부룩·쉴즈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띈다. 광고주는 퍼스트·초이스(First Choice), 머피엣·케이퍼, 케티·화스 사진을 선전하는 광고판도 많다. 광고주는 수퍼·채널(Super Channel).

캐나다최초의 페이·TV(Pay TV)—케이블 값외에 시청료를 별도로 내고 보는 복수TV프로그램이 2월1일부터 시작된다.

페이TV는 (1)프로상영중 광고가 없고 (2)검열로 가위질 당하지 않은 영화를 보여주며 (3)케이블 TV가 들어온 곳 중에서도 외부콘버터(External Converter)및 케이블회사가 주는 특별장치가 있는 가정만 볼 수 있다.

케이블회사(예: 메트로·케이블, 로저스·케이블)는 페이TV 시청희망자당 월 $7.50~12.00씩 계산, 페이TV 회사에게서 프로그램을 사서 이를 시청희망자게게 보여준다.

케이블회사는 이대가로 정규케이블 사용료 외에 채널 1개당 월 17달러를 받는다.

토론토지역 케이블회사들은 허가된 3개 채널중 임의의 2개채널 시청료를 30달러, 3개 전부는 42달러(이상가격은 모두 판매세 포함)로 정했다. 페이TV회사중 퍼스트·초이스는 전국망을 가졌으며 다양한 내용의 프로를 취급한다.

또 같은 내용을 불어로 똑같이 내보낸다. 온타리오 및 알버타주를 카버하는 수퍼채널회사는 동부 해양주(노바·스코셔주등)의 스타·채널회사와 같이 일정 지역내에서만 방영한다.

C-채널회사도 역시 전국망을 가졌으나 발레, 오페라등 특별한 프로만 취급한다.

기타 이제까지 허가된 회사로는 불어로 방영되는 TVEC(83년12월 방영)와 뱅쿠버지역의 복합민족 언어로 방영되는 월드·뷰·텔레비젼이 있다. 연방정부는 받을 예정. 시청자가 직접·피업, 자신이 창치하면 20달러.

콘버터가 처음부터 붙어있는 TV셋트도 외부 콘버터가 필요하다(그레험·케이블 지역은 예외)

페이TV는 먼저 시작한 미국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르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홈·박스·오피스, 쇼우·타임등 회사는 30-40년대의 명화들을 엄격히 선정, 상영하고「드라큐라의 욕정」등 브로드웨이의 연극물도 보여준다. 하루 24시간의 스케쥴이므로 같은 프로가 여러번 반복된다.

캐나다회사들이 미국 프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스·라브(부룩쉴즈 주연), 케논볼·런등 대형영화를 준비하고 24시간중 나머지 시간은 버라이어티·쇼, 코메디, 스포츠등으로 메꾼다.

대체로 같은 영화가 6일간 10번의 비율로 방영된다.

수퍼·채널회사는 평범한 인간들(Ordinary People), 고백(True Confessions), 프랑스장교의 여인(The French Lieutenant's Woman)등 프로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C-채널회사는 방향을 달리해서 발레, 오페라, 기타 고전적 문화물을 주요 프로로 한다. 예컨데 마카로바가 주연하는 발레 스완·레이크(백조), 뉴욕·시티

케이블외에 콘버터 필요
시청료 채널당 월 $17

브리티쉬·콜럼비아등 지역방송회사의 허가신청을 검토중이다.

케이블회사는 페이TV를 공짜로 보는 케이블가입자가 없도록 분해된 영상을 보낸다. 이때문에 이를 다시 완전한 영상으로 맞추는 특별장치(Descrambler)가 있어야 시청이 가능하다.

로저스케이블 같은 회사는 이 장치가설에 30달러를 수는 없다. 라디오, TV, 전신전화를 통제하는 연방정부의 라디오TV통신위원회(CRTC)는 페이TV회사가 첫해에는 캐나다제작품을 전 프로의 30%로 영업, 5년째부터는 50%로 높이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퍼스트·초이스는 온·골든·폰드(헨리폰다, 캐더린·햅번 주연), 택타일, 엔드레 발레 스트라빈스키·페스티벌, 조나단·밀러의 신판 오페라 리고렛등을 준비중이다.

캐나다물로는 국립발레단의 베로니카·테난트가 주연하는 새사람들(New Comers)와 크래식·기타의 세계적 연주자 리오나·보이드등이 등장한다. C-채널사는 주 56시간 방영한다.

◆사이언스센터에서 볼수있는 미스·피기등의 인형극

다양한 TV프로
소련하키팀과의 대전

크리스마스인 25일(토)부터 31일(토)까지의 한주일을 주로 집에서 보내는 독자들에게는 TV가 가장 요긴한 벗이 될지도 모른다. TV가이드 잡지를 통해 이번주의 볼만한 프로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스포츠

1)하키

스포츠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하키와 풋볼이다. 하키에서는 세계하키의 쌍벽을 이루는 소련대표팀이 북미를 방문 NHL 6개팀과 정상대결을 벌인다.

▲소련: 에드몬톤·오일러(28일, 화 9PM-CTV) 소련이 레드아머, 모스크, 다이나모등에서 선발된 트레착, 세르기등이 NHL 슈퍼스타 웨인·그레츠키소속의 오일러팀과 대결한다.

▲소련: 패백·노르딕(30일, 목 8PM-CTV) 사실상 소련과 체코의 대결이다. 노르딕은 체코대표선수 출신으로 캐나다에 망명한 스타스니 3형제가 이끄는 팀으로 같은 유럽스타일의 하키가 선보인다.

▲소련: 몬트리얼·캐네디안(31, 금 7PM-CTV) 73년이래 소련은 한번도 이팀을 물리치지 못했다. 만약에 이번겨울에 하키게임 하나만 보겠다면 이게임을 놓치지 말기를.

▲몬트리얼·캐네디안: 토론토·메이플립스(29일, 수 8PM-CH11) NHL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의 라이벌대결이다. 그러나 바닥을 헤메는 토론토가 2점이내로만 패해도 성공이다.

2)등반

◆세계 최고의 골리 소련의 트래착

캐네디안 에베레스트정복(29일, 수 9PM-CBC) 지난 10월5일 캐나다최초로 세계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등정기 CBC특집팀이 제작한 이필름은 제작비만 100만달러가 들었다.

3)NFL 풋볼

종반에 접어들수록 경기에 박진감을 더해간다.

▲뉴욕·자이언트: 세인트루이스·카니널즈(26일 1PM-CBC) "죽느냐""사느냐"의 대결이다. 두팀중 어느팀이 패해도 1월11일부터 시작되는 프레이오프에 탈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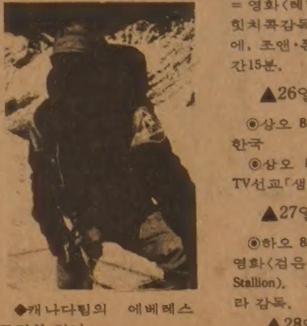
▲필라델피아·이글스: 달라스·카우보이(26일 4PM Global & CBC) 전통의 라이벌끼리의 대결이다.

▲버팔로·빌스: 마이애미·돌핀스(27일 9PM Global & ABC) ABC TV의 문데이·나잇 풋볼이다. 오렌지보울경기이며 전통의 라이벌대결이다.

이밖에 프로·피겨스케이팅 챔피온전등이 중계된다.

(B) 연예

▲25일(토)



◆캐나다팀의 에베레스트정복 장면.

◉하오 2시(채널 17, 19)=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illegible] 공연되는 오페라 험퍼딩크작 〈헨젤과 그레텔〉. 2시간동안 계속된다.

◉하오 5시반(채널11)= 빙·크로스비, 대니·케이, 로즈메리·클루니 공연의 영화 〈화잇·크리스마스〉 2시간 30분짜리

◉하오 9시반(채널17)= 영화 분홍신(The Red Shoes) 모이라·쉬어러가 주연한 발레리나의 일생을 그린 멜로드라마.

◉하오 11시45분(채널 13) = 영화〈레베카〉 알프레드·힛치콕감독 로렌스·올리비에, 조앤·폰테인 주연. 2시간15분.

▲26일(일)

◉상오 8시(채널 79)= TV한국

◉상오 8시반(채널 79)= TV선교「생명의 말씀」

▲27일(월)

◉하오 8시반(채널9, 13)= 영화〈검은 종마〉(The Black Stallion). 프랜시스·F·코폴라 감독.

▲28일(화)

◉하오 8시(채널19)= 런던 페스티발 발레단공연의 차이콥스키작〈호두까기 인형〉

▲29일(수)

◉오전 10시(채널47)= TV한국

◉오전 10시반(채널47)= 한국 TV선교(생명의 말씀)

▲30일(목)

◉하오 8시(채널79)= 영화〈의사 지바고〉 제1부 데이빗·린감독의 대형영화로 파스테르 나끄 원작. 오마·샤립, 쥴리·크리스티, 제랄드·채플린 공연.

◉하오 11시(채널79)= 영화〈의사 지바고〉 제2부.

케이블회사별 다이얼

CABLE COMPANIES Dial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Rogers	19	22	47	4	5	79	9	7	★	11	25	2
Graham/Maclean-Hunter (Tor.)	19	22	47	4	5	79	9	7	★	11	25	2
Willowdowns	19	22	47	4	5	79	9	7	★	11	25	2
Scarborough	19	22	47	4	5	79	9	7	★	11	25	2
Wired City	19	22	47	7	5	79	9	4	★	11	25	2
Classicom	19	22	3	4	5	79	9	2	★	11	7	25
Pickering	19	22	4	7	5	79	9	12	★	11	25	2
Maclean-Hunter (Ajax)	19	22	4	17	5	79	9	7	★	11	25	2
Oakville	19	22	11	13	5	79	9	2	★	4	25	7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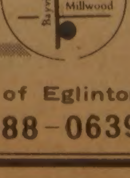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交易·經協확대 합의

어제 韓·터키 頂上회담 1시간25분간 單獨으로

◇全斗煥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에브렌터키대통령과 韓·터키頂上회담을 갖기에 앞서 에브렌대통령으로부터 터키최고훈장을 받고있다.

제3國 공동進出 논의

全대통령 "經濟협력은 民間主導로"

全斗煥대통령은 21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케난·에브렌터키대통령을 맞아 韓·터키頂上회담을 갖고 韓半島정세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전반과 交易증진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원수는 이날 상오10시45분부터 낮12시10분까지 1시간25분동안 書齋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간의 通商증진, 경제협력확대와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협력및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黃善必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양국원수는 또 경제분야에서 양국이 제3국으로 공동진출하는문제에 관해서도 의견교환을 가졌다.

全대통령은 특히 이자리에서 『양국간 經協의 기본방향은 양국의 기업인들이나 경제관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을 통해 民間主導型으로추진돼야할것』이라고 밝히고 『지금의 세계경제정세는 지난 1930년대이래 최악의 상태로 경제위기를 넘어 人類의 위기라고까지 표현할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이에대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브렌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국경제협력및 通商증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뒤 『터키는 共産大國들과 인접해있기때문에 막강한 防衛力유지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공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원수는 단독회담이 끝난뒤 小接見室에서 열린 확대회담장에 참석했으며 이자리에서 全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통상, 기술협력, 문화예술등 각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頂上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에브렌대통령 영애 귀르비트여사와 별도로 환담을 나눴다.

확대회담에는 한국측에서 李範錫외무 金東輝상공장관 朴英駐터키대사 咸秉春대통령비서실장 鄭順德정무제1·金在益경제·黃善必공보수석비서관이, 터키측에서는 튀르크멘外相 파신國務相 투나바쉬 駐韓터키대사등이 참석했다.

에브렌대통령은 頂上회담에 앞서 숙소인 新羅호텔에서 金俊成부총리내외를 접견하고 국립묘지를 참배했으며 頂上회담이 끝난뒤 이날낮에는 경제4단체가 新羅호텔에서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에브렌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駐韓외교단을 접견한뒤 駐韓터키대사관저를 방문했다.

에브렌대통령은 訪韓3일째인 22일에는 金山유엔기념묘지에 獻花한뒤 昌原공업단지와 새마을공장등을 시찰한다.

全대통령 "세계평화·繁榮의 계기로"
에브렌 "南北對話지지 변함없어"
兩國頂上 만찬

全斗煥대통령은 21일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분쟁의 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있는 가운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욱深化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지적, 『이러한 때일수록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끼리 힘을합쳐 서로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영부인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케난·에브렌터키대통령을위해베푼 만찬에서 만찬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각하의 방한은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을강화하는기회로서 뿐만아니라 韓半島와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계기로서도 그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에브렌대통령은 이에 대한 答辭에서 『韓·터키 양국민은 가까와질수 있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양국은 상호이익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력해 지식과 경험을 서로교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브렌대통령은 또『한국문제를 어떠한 외부의 간섭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南北韓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코자 하는 한국의 입장은 터키의 기본외교정책과도 일치하는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터키는 관심을 갖고 注視하고있다』고 밝혔다.

에브렌 대통령은 끝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터키에서 환영할수있게 된다면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全대통령내외의 터키방문을 초청했다.

技術협력委 열려

제2차 韓·터키통상증진및 경제기술협력합동위원회가 케난·에브렌터키대통령의訪韓을계기로 21일하오 서울 新羅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간 교역증진, 합작투자, 건설협력, 기술협력, 민간경협위설치및 협정체결문제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核미사일 減縮등 제의

안드로포프演說 美MX배치하면 對應

【모스크바外電=聯】 소련공산당 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는 21일 소연방창설 6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미국이 만약 앞으로 MX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소련도 이에 상응한 신무기를 배치, 대응할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현재로서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배치된 미사일수에 맞춰 소련의 유럽지역 중거리 미사일도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드로포프의 발언은 소련이 미사일을 현재의 6백여基에서 2백50여基로 줄이고 이중 1백50여基만이 서방을 겨냥하게 될것이라는 이달초 뉴욕타임즈紙 보도에 뒤이은것이다.

안드로포프는 또한 전략무기를 25%이상 감축할용의가 있음을 美·蘇군축회담에서 소련이 미국측에 제안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그는 또 소련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핵무기감축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레이건의 제안은 여전히 상호의 의심을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政府, 稅收결함급증에 대처

豫算의 移·轉用 규제

내년에 낭비要因찾아 모두 除去

정부는 내년1월부터 3월사이에 경제기획원예산실과 관계부처직원 5백여명을투입,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전국규모의 현지조사를실시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낭비적요인을 모두 가려내기로하는한편 ▲각부처가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소관예산을딴데다쓰는 항목간 移用·轉用을 엄격히 규제하고 ▲사업예산과 실제낙찰사업비의 차액을 마음대로쓰는 낙찰차액의 재사용을 일체금지시키고 ▲예산집행때마다 기획원예산실의 사전심사를 다시받도록하는 수시배정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등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서철저한 예산절약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수결함규모가 갈수록커져 올해의 경우 當初(當初예산)예산보다 7천8백여억원보다 5백~7백억원 더늘어난 8천3백~8천5백억원으로 세수결함이 확대될전망이고 내년에도 물가안정, 세계경제의 불투명등으로 상당규모의 세수결함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해진것이다.

경제기획원은 21일하오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을 참석시킨가운데 83년도 재정운용회의를소집, 이같은 예산집행지침을 시달했다.

기획원은 지침에서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2조5천여억원중 1천7백여억원에 불과했던 수시배정사업비규모를내년에는1조원 (총사업비2조7천9백억원)으로확대, 구체적시행계획의점검이 필요한사업, 세수가 부진할때 부분적으로 집행유보가 가능한 사업, 집행방식이 신축적인 사업등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사업에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심사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예산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의 移用·轉用제한, 낙찰차액재사용금지와 함께 주요비목별 예산집행지침을 별도로 시달, 관서경비의 경우 예산사용의 범위, 집행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요사업의 경우 심사분석결과를 예산집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5백여명의 관계직원을 동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전국규모로 실시되는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는▲사업운용실태와 문제점점검▲지방관서운용비사용실태▲예산보조사업및 보조단체운영실태▲경비운용실태등을 조사, 그결과를 예산집행및 84년도 예산안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레이건 極東방문 84년으로 延期가능

【워싱턴=聯】 로널드·레이건美대통령의 極東방문은 83년에는 어렵고 84년에나 실현될것같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20일 보도했다.

謹頌新禧

회원 여러분의 만복을 빕니다 새해아침

재카나다 학우회

"經協 조속妥結 노력"

在日동포 地位향상 다짐

韓日議員聯총회 공동聲明

【東京=宋孝彬특파원】 韓日의원연맹 제10차 합동총회가 21일하오5시 韓日經協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결되어야 한다는것등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閉幕됐다.

韓日의원연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두나라 의원단은 소련의 군사적위협과 韓半島赤化의 야망을 버리지않고있는 北韓의 무력증강에의해현저하고 심각한 긴장상태가존속하고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히고 『특히 양국의원단은 日本역사교과서 문제가 韓日두나라의 우호관계에 금이가도록한 사실에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과거역사에대한 올바른이해가 양국우호관계의 기본과 직결된다고 함께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이날상오11시 東京데이꼬꾸(帝國)호텔에서 열린 총회는 경제협력, 무역불균형의 시정, 在日동포의法的지위향상에 노력할것을 다짐했으며이어 ▲안보외교▲경제▲사회문화▲법적지위등 4개분과위로 나눠 韓日우호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나까소네(中曾根康弘)수상은 이날총회에 참석, 축사를통해 『一衣帶水인 韓日양국은 흉금을터놓고 명실상부한 우호인국으로 협력해야한다고 확신하며 이를위해 폭넓은 국민간의 이해의 기반위에서 상호협력을 증진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丁來赫국회의장은 이날 메시지를통해 『나까소네 새內閣의 出帆으로 韓·日·美3국간에 새로운차원의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金相浹총리도 메시지를통해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자유진영의 결속을 확고히하기위해 韓日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深化하자』고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련의군사적위협과 한반도적화의 야망을 버리지않고있는 북한의 무력증강에의해 현저하고 심각한 긴장상태가 존속하고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양국은 폭넓은 경제·기술협력을 실현하고 현안인 經濟문제에대해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것에 합의했다.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촉구한다. ▲국민간의 폭넓은 교류를 위해 한일문화교류 기금설치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것에합의했다. ▲교과서문제의 시정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촉구한다. ▲在日동포의 법적지위향상과 사할린억류 한국인의 조기귀환을 위해 계속노력한다.

겸직議員 業體비호·請託막게
有關常委배정 억제
내년에

국회는 내년 의원들의국회常委재배치때 兼職의원의 有關상임위배정과 동일지역구출신의원의 같은 常委배정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겸직의원이 有關상임위원을이용, 자기업체의 이익을 꾀하거나 청탁하는 사례와 동일지역출신이 같은상임위에 배정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지역구를 의식하는발언을하거나 지역구사업에관해 청탁하는사례를 배제하기 위한것이다.

李鍾贊국회운영위원장은 21일 『일부 겸직의원들이 有關상임위에 배치된것을 이유로 자기업체를 비호하거나 청탁하는 사례가 없지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법사위에 변호사출신의원이, 농수산위에 농촌출신의원이 배치되는등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의원의 有關상임위나 동일지역출신의원의 같은常委배정은 일체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재 의원들의상임위 배치를 바꿀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訪問희망
나까소네 日首相

【東京=宋孝彬특파원】 나까소네 (中曾根)日本수상은20일『나의 재임기간중 한국을 꼭방문하고싶다』고 訪韓의사를표명하고『全斗煥대통령과 상호협력하여 양국간의우의를 더욱 공고히하는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地平線

저무는 82년, 세계는 금세기 가장 위대한음악가를 세모에 잃었다. 「피아노의 帝王, 樂聖, 入神의 아르투르·루빈스타인」. 이런 최고의 찬사가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다. 정작 본인은 이런 찬양을 아주 싫어했다. 「95살의 청춘」은 한평생 인간의 사랑과 창조의 힘만 믿고 살아왔다. 「건반의 詩聖」은 우리나라 땅을 두번 밟았다. 한번은 지나는길로, 또 한번은 직접 피아노의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서—。 ▼1966년 7월, 장마철에 서울을 밟은 그의 첫 마디는 「드디어 한국에 왔군…」이었다. 화사한 핑크색 와이셔츠, 銀灰色 넥타이 차림은 그대로 「노령의 청춘」으로 눈부시게 보였다. 한국일보社가 초청한 梨大강당의 연주는 우리 음악사에 길이 남을 감격적인 공연이 되었다. 루빈스타인의 발길이 안닿은 나라도 거의 없다. 그의 서울공연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20세기 「음악의 僻村」이 될뻔했다.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미워 신세계로 옮겨 미국시민이된 루빈스타인은 공산 폴란드 조국에 대한 애정은 언제나 애틋했다. 19세기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처럼 소년기를 바르샤바서 보내면서 음악공부를 했다. 두樂聖의 음악적인 「早熟」은 비교하기 어려울만한 神童같은존재라고 할수 있다. 두사람 모두가 파리를 끔찍이 사랑했었다. 17살때 처음 미국에 가서도 양말 한켤레만은 파리에서 가져온것을 신을 정도였다. 『파리는 살아도 살아도 싫증이 안나는 곳』이라고 술회한 루빈스타인이다. ▼그의 피아노에선 언제나 새로운 음악이 탄생했다. 음악이란 사람을 창조하는것 같다며 음악은 연주때마다 다른 법이라는 말을 자주 들려주었다. 그의 예술은 사랑의 힘에서 솟아났다. 자서전「나의 젊은 시절」에서 젊은 나이의 그가 「바람둥이」였음을 서슴없이 고백한다. 관심의 90%는 여성이었고 14살때 하숙집 여주인을 유혹하는 플레이보이 氣質도 보였다. 낭만과 정열이 90대까지 그의 음악을 불태워 준 것이다. ▼루빈스타인은 89살에 눈을 잃었다. 그때까지는 은퇴란 생각지도 않았다. 젊어서 물러나는 예술가에 동정을 보내며 은퇴는 곧 무덤으로 여길만큼 정력이 넘쳤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음악에만 몰두하고 살아온 그의 생애는 「예술의 驚異」다. 핏줄은 폴란드人, 정신은 파리지앙, 그리고 미국시민인 루빈스타인은 세계의 예술가로 일생을 「평온하게」 마쳤다. 巨大강당에서본 巨匠의 잔영이 새삼 눈에 선하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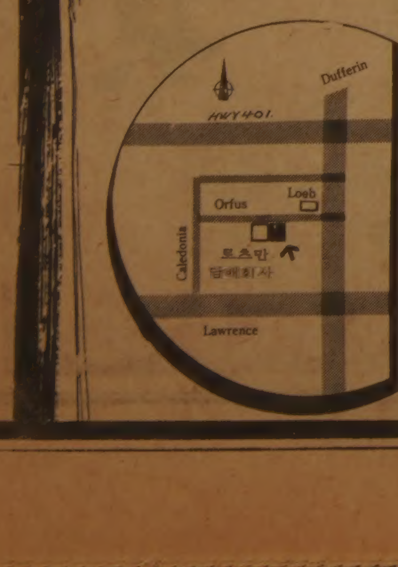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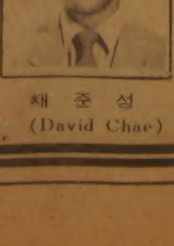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도매상 Cash & Carry
DOMINION SMALLWARES
확장이전공고
한인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도매상은 아래의 장소로 확장이전하게 됨에 인사드립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라오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대표 Sol Dennis 쎄일즈·매니저 김근대 올림.

HWY401
Dufferin
Orfus
Loeb
Caledonia
토츠만 담배회사
Lawrence
새주소 :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 : 789－7214～5
(종전과 같음)
이전날자 : 1983년1월4일(화)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노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최고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c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들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란軍 2백여 死傷

이라크주장 이틀동안 觀測所파괴도

【매나마(바레인) AP=聯合】 이라크군은 19일이후 지금까지 벌인 이란군과의 전투에서 총2[illegible]0명의 이란군을 사상케했다고 20일 매나마에서 청취된 이라크의 INA통신이 보도했다.

INA통신은 이라크군 최고사령부가 수정발표한 코뮈니케를 통해 이라크군은 이번 전투에서 다량의 이란군무기 및 탄약등을 노획하고 1대의 전차와 1개의 군관측소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19일 단행된 이란서남부 데즈풀시에 대한 포격이 최근 이란군의 바그다드市 INA본사 공격에 대한 이라크의 대응조치임을 밝힌 앞서의 코뮈니케주장을 되풀이하지는 않았다.

이 코뮈니케는 이란군의 최근 멘달리市포격으로 1명의 이라크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힌바있다.

伊國防相 議會서 밝혀…敎皇저격사건에 蘇개입 / 波침공의代案

【로마 UPI·AP=聯合】 렐리오·라고리 이탈리아 국방상은 20일 작년에 있었던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저격사건을 하나의 「전쟁행위」라고 규정짓고 이암살기도사건은 소련의 폴란드침공代案으로 자행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리국방상은 이날 의회에서 불가리아의 이탈리아에 대한 스파이활동과 마약및무기밀매행위는 물론, 교황암살기도사건관련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음으로 공식보고하는 가운데 그같이 밝힘으로써 81년5월13일 로마교황청성베드로광장에서발생했던 교황저격사건에 소련도개입돼있음을 강력히시사했다.

이날 의회에서 발언키로돼있는 4명의 이탈리아각료중 한사람인 라고리국방상은 터키人저격범 메메트·알리·아자에 의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레바논「外軍철수」곧 協商

이스라엘 場所양보로 교착 解決

양국 48년의 戰爭종식 빠르면 이번週內 협정

【베이루트·예루살렘 AP·UPI=聯合】 샤피크·와잔 레바논수상과 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은 20일 장소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레바논주둔외국군철수 및 이스라엘·레바논관계정상화에 관한 협상이 수일내로 개시될 것이라고 각각 밝혔다.

와잔수상은 이날 아민·제마옐대통령과 회담한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주둔외국군철수에 관한 회담을 예루살렘과 베이루트에서 돌아가며 열자는 당초의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조기협상의 길을 터놓았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회담을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와잔수상은 이스라엘·레바논협상이 이번주중에 개시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장소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속히협상이 개시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스라엘내각은 19일 양국간의 협상장소에 예루살렘도 포함시키자는 당초의 주장을 철회하는 한편, 이스라엘측이 지난8주동안 계속돼 온 이스라엘·레바논접경 협상에서 마련된 협상의 골격을 수락했다고 발표했었다.

◇蘇·체코양국首腦의 對座 蘇聯共產黨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左)와 체코共產黨서기장 구스타프·후사크(右)가 20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모스크바20일UPI特電=聯合】

蘇軍 아프간 撤收없다

카르말 大統領회견 화학武器사용 否認

【모스크바 UPI·AP=聯合】 바브라크·카르말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은 20일 아프간 국내反정부 회교반란군들이 완전히 소탕될때까지 소련군의아프간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소련건국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위해 수상 술탄·알리·키시트만드와 외상샤·모하마드·도스트등 각료들과 동행한 카르말은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 기념식을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정부는반란군들과의 여하한타협도배격한다고말했다.

이란 호메이니 後繼者선출선거서 과격파 聖職者 압도적當選

【런던聯合】 이란의 과격파성직자들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루홀라·호메이니옹의 후계자를 선출하기위한 「賢人會議」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것으로 보인다고 이란관영 IRNA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과격한 사회경제개혁을 지지해온 알리·하메네이대통령, 호자톨레슬람·하세미·라프산자니의회의장이 테헤란선거구에서 1, 2위로 당선됐다고 말하고 대법원장 아야톨라·아르데빌리도 당선됐다고 전했다.

임기8년의 賢人會議위원 83명을 선출하기위한 이번선거결과가 대부분 판명됐으나 과반수를 얻지못한 선거구에서는 결선투표가 다시 실시된다.

屍體89具발견 베네수엘라 發電所 폭발

【카라카스 로이터·AP=聯合】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서쪽 약 40km 지점의 타코아 발전소에서 19일 두번의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베네수엘라사상 최악의 화재는 21일현재 계속되고 있으며 사망자수는최소한 1백명, 부상자는 수백명으로 각기 늘어날것으로우려된다.

기술자들이 石油저장탱크에 석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번 화재는 현재까지 진압되지 않고있어 수도인 카라카스시내의 일부지역이 정전되었다.

경찰과 민방위관계자들은 이번 화재로 89명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중에 52명의소방대원과 4명의 기자들이포함돼있다고 말했다.

北韓실정폭로 서적 佛서 내년1월出刊

【제네바=聯合】 金日成치하 北韓의 실상을 폭로하는서적이 최근 프랑스에서 탈고돼 내년1월 출판될것으로 20일밤 전해졌다.

『金日成치하의 北韓』의 저자인 뉴스편집가겸 공산권전문가 장·피에르·브리르씨는 바르·다베 출판사에서 발간될 이책이 프랑스최초의 金日成비판서가 될것이라고 전하고 책의 저술을 위해 南北韓·美國및 유럽지역에서 입수한 각종 公私자료를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2백80페이지로 출판될 이책은 지난45년부터 금년까지의 北韓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모두 8장으로 구성됐다.

柳 民韓총재 "選擧法개정 바람직"

【淸州=金永煥기자】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1일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여 어떤형식으로든 金權타락선거를 막아야하며 이래야만이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이날 忠北淸州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번 청와대 회담때 全斗煥대통령은 정치규제자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地自制의경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기는 어려워도 부분실시는 희망적』이라며 『국회법도 야당이 노력하기에 따라 상당부분개정될 수있을것같다』고 전망했다.

民正 92개地區黨 정기위원회

民正黨은 내년 상반기중에 열기로한 全黨大會에 앞서 내년1월17일 全南 海南지구와 慶南 忠武지구당을 시작으로 전국 92개지구당 정기위원회를 개최, 2월10일까지 모두 끝내기로했다. 다음은 民正黨 전국지구당정기위원회일정표이다.

◇1월17일=海南▲忠武 ◇18일=▲寶城▲長興▲釜山中區▲東萊▲馬山▲鎭海 ◇19일=▲光州東▲光州西▲浦項▲慶州▲晋州 ◇20일=▲東草▲南原▲蔚珍▲江陵▲南海 ◇21일=▲三陟▲麗水▲順天 ◇22일=▲和順▲濟州 ◇24일=▲釜山西區▲釜山南區▲木浦▲金泉▲漆谷▲蔚山 ◇25일=▲大德▲驪州▲慶山▲陜川 ◇26일=▲金川▲井邑▲安東▲榮州▲咸陽 ◇27일=▲南楊州▲忠州▲洪城▲靈光▲大邱中▲達城 ◇28일=▲議政府▲抱川▲鎭安 ◇29일=▲江西▲[illegible]▲瑞山 ◇31일=▲釜山鎭▲〃北▲大邱東區▲大邱[illegible] ◇2월1일=▲扶餘▲金堤▲聞慶▲金海 ◇2일=▲平澤▲槐山▲大田東▲〃中▲群山▲密陽 ◇3일=▲東大門▲江南▲安養▲寧越▲淸州▲天安 ◇4일=▲城東▲城北▲原州 ◇5일=▲[illegible]▲仁川中▲〃東▲春川 ◇7일=▲鍾路▲道峰▲富川 ◇8일=▲西大門▲永登浦▲龍仁 ◇9일=▲銅雀▲江東 ◇10일=▲九老▲冠岳

人事異動

경제기획원 ▲본부근무(경제교육기획관) 金泰鼎

中小企業振興公團 ▲綜合企劃室長 [illegible] (1級)崔然相 ▲美國事務所長(1〃)朴英淳 ▲責任指導[illegible]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직세국장 趙寬行(本廳심사국장)

병무청 ▲[illegible]

國民銀 ▲光陽出張所長 [illegible]

本社來訪

▲金川明씨(韓國가봉國協會長) 人事次

記者의 눈 — 政治 방학

國校 꼬마들이나 中高生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방학이 국민의 代辯役을맡은 選良들에게도있다. 국회閉會기간중인 봄, 여름, 겨울 등 三季에 꼬박꼬박 주어지는 「政治放學」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자 의원들은 어김없이「겨울방학」을 맞았고 방학日程表를짜고 歸鄕활동등 課題物 준비에 부산하고 있다. 사실 의원들에게는「放學」이 무조건 즐거운것이 아니며 어떤의미에서는 원내활동의 연장이고 때로는 議政활동보다 더 苦役스러운기간이기도하다.

방학중에 의원이 반드시 치러야할 숙제의하나는 바로 歸鄕활동이다. 국회가 끝나면 의원들은 자신이 작성한 議政활동의 成績表를 들고 선거구민들에게 評點을받으러 내려가야하며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議政業績을 PR하고 票밭을가꾼다. 票밭가꾸기에 이보다 확실한 典型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여기에渾身의 힘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유권자들도 방학철이면 자기손으로뽑은 選良들을 은근히 기다린다. 「국회는 어떻게끝났고 實名制와 稅法은 도대체 어떻게 결말이났으며 정치의안과 자원관리법안등은 왜 계류됐는지…」궁금증을 풀어보려고하기때문이다.

요즘의 선거구민들은 대체로 지난날과달리 막걸리 한사발보다는「더많은얘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것같다. 그래서 의원들은「최소한의경비」외에 「더많은 얘기보따리」를 가져가기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만한다.

그래도 여유있는 여당의원들은 방학이되면 장기간 지역구에 체류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만나지만 財力이 모자라는 野黨의원들은 몸으로 때우는 肉彈공세와함께 短期戰을 치르느라 더많은 정력을 소모해야한다.

이같은 의원들의 歸鄕활동을 지켜보고있노라면 의원의 院外활동은 바로 苦役으로 통하며 忍苦에 익숙한 사람들만이 選良이될 수있다는 착각을 하게도한다.

이밖에 의원들은 방학을 이용, 앞으로있을 議政활동의 자료를수집하고 나름대로의 연구를하느라 시간을 쪼개기도한다.

그러나「政治放學」을 그야말로 방학으로 착각, 外遊를즐기고 휴양이나 하며 지내는 의원들도 적지않다.

학생들도 방학을 이용, 心身을 단련하고 실력을향상시키듯이 의원들도 방학기간중 議政활동자료를 모으고 지역주민들과의 쉼새없는 대화를 통해 民意의 실상을 파악하고 국민의소리를듣는 노력을 게을리하지않아야한다.

國政을 논의하고 국민의 뜻을 議政에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의원서로간에 優劣이 드러나는것은 방학기간을 얼마나 잘활용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있겠다. 【李以春기자】

社說

血盟友誼와 實質協力

—韓·터키頂上會談에 어린 새期約

서울과 앙카라를 잇는 형제적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實質協力확대를 내다보게하면서 터키共和國의 케난·에브렌 大統領이 73명의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20일하오 來韓하였다.

얼마전 이미 論及했던것 처럼 아시아와 유럽의 접경에 위치한 그 友邦元首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우리는 50년대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감한 터키旅團 군인들과 어울린 전우적 친숙감을 되새긴다.

어제 21일에는 靑瓦臺에서 全斗煥대통령과 에브렌 大統領간의 頂上會談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3박4일간 滯韓하면서 에브렌대통령은 民間經濟團體長등각계人士와 접촉하고 韓國의 風物을 익히며 昌原의 重工業시설 및 새마을 공장을 둘러본 후 23일의 離韓에 즈음해서는 양국大統領의 共同聲明이 발표되리라고한다. 별도로 양국外相會談과 通商증진 및 經濟技術協力합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또 韓國·터키文化交流계획이 조인되기도 했다.

靑瓦臺 頂上會談에서는 양국大統領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한데 입각하여 韓半島및 中近東 주변정세를 검토한 동시에 經濟·技術協力증진을 비롯한 政治·外交·貿易·文化등 다방면적 實質協力방안을 논의했다고한다. 특히 새해부터 시작되는 터키의 5차5개년계획과 관련되는 經濟開發에 韓國의 民間企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폭넓게 협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생각컨대 政治·外交분야의 양국協力관계는 줄곧 밀접하게 지속되어온 바이고 아무런 懸案도 존재하지않는다. 이번 外相會談에서도 터키의 튀르크멘外相은 韓國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유엔加入노력 그리고 交叉承認문제에 관한 견해를 지지했으며, 한편 中近東의 平和愛護·安定세력으로서의 터키의 긍정적 역할에대한 韓國의 지지는 시종일관 확고하다.

그러므로 양국의 實質協力발전에서 新局面개척이 바라보이는分野는 바로 經濟·技術協力의 증진이다. 이점 터키측은 多目的댐 건설과 관개·수리·농기계 제작같은 농업기술,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에너지資源開發등 여러분야에 걸친 合作投資와 技術移轉에서 韓國의 民間企業들이 참여할것을 희망한다는 보도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經濟·技術協力의 발전을 통한 同伴者的 공동번영의 추구는 당연하고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두나라는 다같은 中進國으로서 産業構造와 1인당 國民所得이 비슷한데다가 1979년에는 터키의 外債償還중단과 대금지불연기조치로 말미암은 일부 송출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나 대국적으로 보아 양국간에 형제적 유대의식이 뚜렷함은 물론이고 최근년에 터키經濟가 착실한 회복세를 갖추게 하고있으며 또 未開發부존資源이 풍부하다는 고무적 조건을 상응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터키가 에브렌大統領行政府의 탁월한 영도아래 左右極烈테러集團을 진압하여 政治的·社會的安定회복에 성공했으며 요즈음 國際收支의 개선도 밝은 前途를 자아내게했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近代化作業에서 눈부신 전진을 이룩한 回敎國家로서 터키가 中近東지역에서 누리고있는 影響力은 대 또한 괄목할바 있다. 비록 터키는 아직껏 무거운 外債부담과 두자리수를 넘는 物價高, 높은 失業率이라는 經濟的 難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그 해결을위한 착실한 전진은 이미 曙光을 이룰수있게된 느낌이다.

그러한 經協環境의 개선으로 미루어 韓國의 民間業體들의 開發參與는 긍정적 방향에서 권장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合作投資와 技術移轉및 經驗交換에 걸쳐 우리는 그 전통적友邦의 開發노력에 대한 同伴者的 協力증진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에브렌 大統領일행의 滯韓日程이 거듭 보람있고 快適할것을 축원하며 또 한 다짐해 마지않는 바이다.

피고權益위한 進一步

—刑訴法규칙 制定의 意義와 課題

20일 大法院判事會議는 새로 刑事訴訟法規則을 의결하였다. 大法院長의 公布절차를 마친뒤 명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이規則은 「法律에 저촉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訴訟절차에관한 規則을 제정할수있다」는 憲法(제1백9조)規定에 따른것이다.

이미 보도된대로(21일자 한국일보 1면)이 규칙은 刑事재판에 있어서의 범죄혐의자인 피고의 人權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그 근본취지는 누구든지 法官의 有罪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刑事訴訟法제2백75조의 2)는 原則하에 刑事訴訟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피의자의 便宜를 고려하고 그人權을 보살피려는데 있다.

그를위해 檢事의 구속영장신청이 있는경우, 피의자 및 그가족등 가까운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영장이 발부되지않게할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有利한 자료를 담당판사에게 제출할수있게하였다. 有利한 자료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없애버리지 않는다던가 또는 그런 범죄혐의가 아예 없다는것 따위를 뜻할것이다.

다음 보석신청과 구속취소청구가 있을때의 결정이나 結審後判決言渡 기간을 각각 7일과 14일이내로 못을박았다. 이것은 무작정 시일을 끌경우에 더욱 침해되는 人權과 이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초를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규정이다.

그외에도 規則은 공판정에서의 검사신문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묵비권)가 있다는 것이 法에 규정되고 있는데 判事는 이 규정을 꼭 피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또 검사는 피고에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유도신문을 하거나 위압적·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것을 금하기로 하였다.

피의자가 일단 석방된 뒤 또는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후 검사가 다시 구속하고자 할때에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임으로써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는 경향에 대하여 쐐기를 박았다.

이외에 변호인선임의 효력확대·公判開廷日時細分등에 걸쳐서도 피고인측의 不便과번거로움을 덜게하였다.

우리가 알기에는 위에서 살펴본 大法院規則案은 全的으로 憲法과 刑事訴訟法規定의 취지와 테두리속에 드는 당연한 內容을 담은것이다. 이제까지의 재판에서 대개는 그런 內容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온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위한 便宜와 그權益을 더욱 보살피려는 관점에서 이를 明文化한것은 그意義가 크다고 본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判事에 의한 재판과정에서만 權益을 보호하는것으로는 刑事소송이 완벽하게 民主化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事理다.

그것은 司法警察官과 檢事의 범죄수사단계도 刑事소송의 必須的부분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단계의 절차에 대하여도 應分의 法規가 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기위하여는 刑事訴訟法施行令(大統領令)을 새로 제정하여 구속영장청구에서부터 公判回附까지의 수사과정과 절차를 되도록 피의자의 人權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자세히 규정하여야 할것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위에서 살펴본 大法院規則案의 內容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한것도 규정되어있으나 그것은 判事와 公判절차에 관련되는 것에 限하고있으므로 그점에서 盡善盡美한것은 되지못하는 것이다. 刑事재판의경우 피의자의 人權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더욱더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것이다.

政界往來

◆韓·土양국元首 勳章과선물교환

全斗煥대통령은 21일상오 청와대를 방문한에브렌터키대통령과 頂上회담을 갖기에 앞서 소접견실에서 잠시 환담.

全대통령은 『어젯밤 쉬시는데 불편이 없었느냐』고 물었고 에브렌대통령은 『각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쉬었다』고 인사.

이어 에브렌대통령이 『앙카라와 한국간에는 7시간의 時差가 있는데, 착오로 시계를 한시간 앞당겨 놓아 오늘 아침 7시30분에 일어나야 할 것을 8시30분에 깼다』고 말하자 全대통령은 『한시간 더 주무셨으니 시계를 잘못 맞춘것이 오히려 잘된것 아니냐』고 말해 웃음이 일었다.

에브렌대통령은 또 50년代末 韓터키軍旅團에 근무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오늘 청와대로 오는 길에 알아볼수 있는 건물은 龍山에 있는 군부대건물, 서울역 그리고 國會의사당건물등 몇몇이었다』며 그동안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시.

양국원수는 환담이 끝난뒤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훈장과 선물을교환했는데, 全대통령은 에브렌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에브렌대통령은 『터키공화국에서 새로 제정한것』이라며 최고영예 훈장을 全대통령에게 주었다.

全대통령은 에브렌대통령에게 銀製거울을 선물했고, 에브렌 대통령의 딸인 귀르비트여사는 영부인 李順子여사에게 [illegible]세트를 선물.

이어 단독회담에서 全대통령은 『한국전당시 우리를 지원해준 터키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않고 있으며 과거부터 지휘관으로서 한국을 도와준 우정과 감사의뜻을 갖고 있다』고 인사했고, 에브렌 대통령은 『한국이 짧은기간동안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데 友邦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확대회담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수행한 관계자 여러분들을 두루 접촉해 [illegible]』 … 『경제가 후퇴하고 國力이 약화돼 친구들도 등을 돌리게 된다』며 나라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나까소네 "全대통령 友好증진 제의에 깊은感銘 받았다"

◆韓日議聯 취임후 첫국제회의

參議院예산심의의 對정부질문에 매달린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은 21일 점심시간을 틈내 東京시내 데이꼬꾸(帝國)호텔에서 열린 韓日의원연맹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는등 열의를 보였다.

그는 『한일의원연맹총회는 수상이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므로 색다른 의의가 있다』고 말머리를 꺼내고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국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준데대해 감사하며 우호증진에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

나까소네수상은 미리 마련된 간략한 축사를 읽고나서 『수상으로 취임한뒤 全대통령에게 인사전화를 했을때 全대통령은 韓·日양국의 頂上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호증진에 노력하자고 제의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同感이었다』고 원고에도없는 얘기를 곁들여 장내의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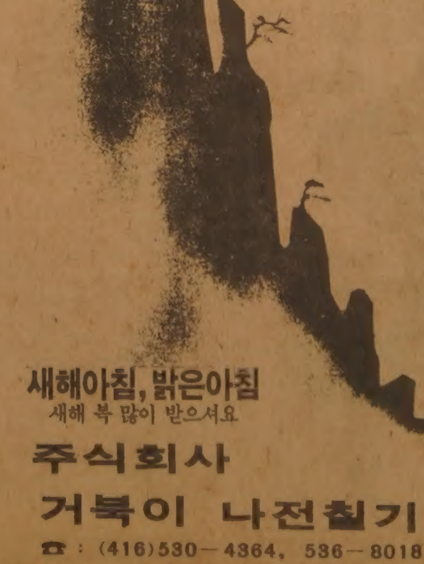
나까소네수상은 마침 이날이 延長국회의 첫날이고 참의원예산심의위에서 對정부질문중이라 도저히 상오 개회식에는 출석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진행되고있는 12시5분 점심시간에 틈을내 축사를 한뒤 곧장 국회로 향했다.

이에앞서 나까소네수상은 20일하오 한국측의원단전원의 예방을 받고 다과회를 베풀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예산심의로 바빠 회장단만 수상관저를 예방하게 됐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民正…年末夫婦동반 세미나

李相[illegible]대표위원의 訪日로 王相[illegible]중앙위의장주재로 열린 21일 民正黨당직자회의는 이날부터 27일까지 前方및 양로원 고아원등을 찾아 위문활동을 벌이고 28일 중앙당 행사, 29일 의원세미나를 열어 금년 해를 마무리한다는 年末 행사일정을 확정.

그런데 이번 의원세미나는 금년한해를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며 「특히 29일 정치연수원에서 열리는 의원세미나에서는 내년초에 있을지구당개편대회개최지침등이 시달될예정이어서 특히 이번 의원세미나에서는 의원부인들도 함께 초청 「의식개혁은 가정으로부터」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고 저녁에는 의원부부가 함께 참석하는送年리셉션도 갖기로 했다」고.



謹賀新年

새해아침, 밝은아침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주식회사
거북이 나전칠기 Turtle Mother of Pearl Inc. 이 정 석
☎ : (416)530-4364, 536-8018

東京 韓日의원聯 총회 決算

교과서解決… 解氷무드속 懸案타결에 進一步

【東京=宋孝彬특파원】歪曲검정교과서문제로 냉각됐던 韓日관계는 21일 1년3개월만에 東京에서 열린 韓日의원연맹 제10차 총회로 解氷期를 맞게됐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측회장인 李載瀅民正黨 대표위원을 비롯한 50여명의 한국측 대표단과 국회가 개회중인데도 불구하고 50여명의 일본측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우호협력을 굳게 다짐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총회는 불편했던 두나라 관계를 청산하고 소련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무력증강이 東北亞의 정세에 불안요인이 되고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경제·사회·문화·각 분야에서 內實있는 협력을 다짐했다.

양국은 또이번 총회를통해 왜곡검정교과서 문제로 냉각됐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현안문제인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하기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년 봄까지 閣僚회의의 經濟협력 타결 가능성

◇나까소네일본수상이 21일 東京에서열린 韓日의원연맹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있다. 오른편 의원들을 향해 앉아있는 李載瀅한국측회장㊧과 崔慶祿주일대사㊨의 모습이 보인다. 【東京AP記=聯】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은 이날 연장국회의 첫날이고, 참의원예산위가 對정부질문중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연맹총회에 참석, 인사말을통해 韓日 우호증진을 강조하는한편 대국적인 견지에서 선진우호를 증진하는것이 바람직한일이라고 말했다.

특히1년3개월만에 의원연맹총회를 무리하게 年末에 強行한 효과는 내년 1월중에는 韓日무역회의를개최, 무역 불균형문제를 시정토록 협의되어 두드러졌다.

의원연맹은 현안문제인 經協문제를 조속히 해결키위해 측면지원을 할것을 공동성명에서 밝히고있으며 나까소네수상도『가까운이웃끼리의 현안문제는 조속히 타결하는것이 상호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것은두나라의 협력증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지난번 스즈끼(鈴木)정권보다 나까소네정권에 대해 더한층 친밀감을 갖고있으며 역사교과서 歪曲문제가 文部省을 중심으로 시정,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한국국민의 反日감정도 가라앉은 것으로 보고 經協타결의 시기가 성숙됐다고 판단하고있는것 같다.

특히 복역중인金大中의 사실상석방인 병원이송조치가 양국관계에 좋은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고있어 빠르면 내년봄 양국정기각료회의를 열어 經協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外務省은 한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마에다(前田)駐韓대사를 불러 한일간의 제반정세를 분석하고 한국이제의한 60억달러의 經協문제의 타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經協문제는 지난여름 李範錫·사꾸라우찌(櫻內)외상회담에서 한국측이 정부차관 23억달러 상품차관 17억달러등 총40억달러의 최종안을 제시하여 일본측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일본도 나까소네내각의발족으로 주춤했던 經協문제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숙되어가고있다. 나까소네수상이 1월중순 訪美를앞두고 가까운 이웃과의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외무성쪽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貿易불균형 是正회의 곧 열어

말만의 友好보다 誠意있는 행동기대

아베(安倍)외상도『교과서문제가 해결되어 두나라사이의 분위기가 좋아지고있으므로 이시기를 놓치지말고 현안문제인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하는것이 좋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일본은 그동안 對韓경제협력에대해 ODA(정부개발차관) 15억달러, 수출입은행차관 25억달러등 모두40억달러(金利6·1%)규모의案을 고집하고있다.

이에대해 盧信永前장관은 ODA30억달러, 상품차관10억달러등 모두40억달러의 代案을제시했으며 지난6월 韓·日외상회담때 李範錫장관이 ODA23억달러, 상품차관17억달러등 모두40억달러 (이자6·5%, 금리6·1%)의 최종안을 제시하기에이르렀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ODA15억달러, 수출입은행차관25억달러중 그일부를상품차관같은 뱅크·론으로 공여한다는 案을 구상하고있어 아직까지 한국측안과는 거리가멀다.

이날 의원연맹 합동총회는 복잡한 국제정세아래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이념을가진 양국이 상호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에 이견을같이하는한편 현안문제인 무역불균형의 시정과함께 경제협력문제를 조속히 그리고원만히 타결되도록 상호노력할것에 합의했다.

이는 곧 양국간의 解氷무드를 계기로 經協상이곧 再開, 원만한 진전을 豫告하는것으로도 볼수있다.

이처럼 好轉돼가고 있는 韓·日관계가 말만의 협력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이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일것인가에대한 해답은 한국의 제5차 경제계획에 일본이 어느정도 협력하는가에 달려있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메아리

既得權

金昌悅 <編輯委員>

12월도 20일을 넘어서, 새해까지는 1주일 남짓밖에 남지않았다. 送年號를 만들랴, 新年號를 꾸미랴, 일손이 바빠진 신문기자들은 제가끔의 담당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을 챙기기 시작할 무렵이다.

우리 사회가 빠른 템포로 변해가는 탓이기도 하지만, 해가 바뀔 적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달라지는 것은 꽤나 많다. 크게는 나라의 현편과 경제사정에 관계되는 것으로부터, 작게는 民願書式 하나가 바뀌는 것까지, 새해 살림을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할 일이 적잖이 생긴다.

오는 새해도 달라지는 것이 많기로는 예외가 아닐테지만, 그가운데서 해가 바뀌기 전에 꼭 짚어 두고 싶은것이 두가지 있다.

그 하나는 의료보험의 療養給與기준에 들어있는 分娩給與에 관한 것이다.

이 給與기준은 해마다 보건사회부가 告示하는데, 현행 分娩給與는 첫아기인 경우는 5만1천원, 그 다음 아기는 4만8백원씩이며, 分娩횟수의 제한은 없다. 그러던것이 지난 5월25일 告示된 83년도 給與기준은 分娩給與대상을 2자녀로 한정하고 이를 정초부터 시행토록 하고있다.

다음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 手當規程이다.

이것 역시 의료보험給與기준과 같은 취지를 담아, 공무원자녀에대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2자녀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현재 수당지급대상인 「3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既得權」을 인정하여, 현행 가족 4인이내 1인당 月5천원인 가족수당과, 中高生자녀의 학비보조수당 每期2만8천~7만2천원을 계속 지급하며, 새해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2자녀이상 자녀만을 제외한다. 이 改正規程은 지난 7월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두가지 「새해에 달라지는 것」이 정부의 人口 억제정책을 반영한 것임은 길게 설명할것이 없다. 이로써 「둘만낳아 잘 기르자」면서, 그 「둘」이상자녀에게까지 「혜택」을 베푸는 모순을 없애게 된다. 이것이 미칠 심리적인 또는 계몽의 효과 또한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시책의 기본을 마다 할 것은 없다.

하지만 생각할 것은 아직 남아있다. 알음알이가 별로 없는 일이라서 사전을 찾아 보니, 사람의 임신기간은 한달을 28일로 쳐서 10개월, 정확히는 2백80일 ±17일로 나와 있다. 정상적인 아기는 임신 2백80일이 지나 태어 나며, 그보다 17일이 빠르거나 늦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임신기간 2백80일을 기준하여 계산하면, 지난 3월27일 이후에 임신한 아기는 새해 1월1일 이후에 태어난다. 그중 「3자녀이상」에 해당되는 아기는 分娩給與와 공무원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가운데 몇 아기는 임신한 뒤 60일을 지나 告示된 給與기준, 1백30일이 지나 확정된 手當規程 탓으로 천덕 꾸러기가 된다.

여기서 소박한 의문이 생긴다. 왜 그 몇몇 아기의 「既得權」은 인정되지 않을까. 무슨 法理를 따져서가 아니라 정부시책이 不利益을 소급시킴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듣기에, 手當規程 개정의 정부原案은 무조건 새해부터 수당지급을 2자녀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 原案대로 하면 「3자녀이상」의 많은 공무원이 사실상 減俸을 당한다. 이것이 不利益의 소급이다. 정부시책이 확정되기전, 그래서 몰랐던 일로 不利益을 당하는 부당한 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原案에는 당연한 반대가 따랐고, 그 때문에 이미 태어난 자녀의 「既得權」을 인정하도록 수정이 됐다.

이 이치는 胎兒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정부시책이 확정된뒤에 임신한 아기와 그 이전에 임신한 아기를 달리 대접해야 부당함이 없고 順理에맞는다. 그러자면 給與와 수당지급의 제한 규정을 告示日 또는 公布日로부터 2백80일지나 발효케하는 周到함이 있어야 했다.

우리나라 현편에서 공무원이나 그 가족, 의료보험가입자는 아직 少數에 든다. 그가운데서 지난3월27일이후 5월25일 또는 7월24일 어간에 임신한 사람, 그것도 「3자녀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極少數일줄 안다.

그래서위에설명한따위를사소한일이라 할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胎兒를 위한 「既得權」이라니 당치도않은 시비라고 도 할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새해들어 한동안, 부모들도 예상못했던 천덕꾸러기가 태어나리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의 첫 울음은 우리정부의 시책이 얼마나 周到한지, 어디까지 順理를 좇는지의 證言이 될것이다. 그소리를 임신도해보고 출산도 해본 가족계획 주무부장관은 뭐라 들을까. 그야말로 명아되는 胎兒의 일이지만, 그것이 정부의 정책자세와 관계되는터라, 결코 사소하다고만은 못한다.

開途國간 共感帶형성

金相浹국무총리 中南美 4개國 巡訪성과

金相浹국무총리의 이번 中南美 4개국 巡訪은 외교적으로는 이지역 국가들과의 既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다.

中南美 국가들은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票밭이라할수있을 만큼 南北의 外交戰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優位를 지켜왔던 보루였다. 南北韓의 外交현황은 한국이 28대12로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포클랜드사태이후 反美감정이 높아져 左傾化성향을 보이고있으며 최근에 수리남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는등 우리의 외교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金총리가 콜롬비아·페루·칠레·멕시코등 中南美의 핵심국가들을 방문,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내년3월 印度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것과 내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주변국가들이 참여하겠다는 확약을 받은것은 북한의 이지역외교공세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된다.

북한은 그들의 외교취약지구인 이지역에 거점을 확보키위해 수년전부터 쿠바의좌익게릴라를 지원하여 맹렬한 공작활동을 전개, 79년 페루와 통상대표부설치에 합의했고 80년에는 멕시코와 수교관계를맺었으며 콜롬비아와 페루에대해서는 「求愛작전」을 펴고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와 칠레는 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 북한의 추파를외면하고있으며 페루역시 외교관계수립에는 주저하고있고 북한과 수교한 멕시코마저 북한의 常駐公館설치는 허용치 않고있다.

6·25때 우리를 지원했던 參戰16국의 하나인 콜롬비아는 지금까지 경제통상면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유대가 깊은 나라였으나 金총리의 南南협력관계의 강화를 제의, 콜롬비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상호 보완하는 실질 경제협력관계를 갖게됐다.

콜롬비아는 베네주엘라에콰도르 페루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지난11월에 열린 美洲기구(OAS)총회에서 外相이 의장직을맡을만큼 영향력을 가진국가이다. 콜롬비아가 아직은 비동맹회원국이 아니지만 현재비동맹가입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유엔뿐만아니라 비동맹회의에서도 우리가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있다.

페루는 비동맹調整國으로서 「비동맹의 본질을 찾자」는 주장을 내세워 온건비동맹국가들의 求心點이 되고있는데 비동맹회의때마다 북한의 정치선전에 브레이크를거는등 親韓정책을 고수해온우방이다. 金총리방문을 계기로 페루역시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여 韓페루 협력위원회를 상설협의체로 발족시켜 자원의 개발및 공급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했다.

金相浹 국무총리가 20일 대통령관저로 미겔·데라·마드리드 멕시코 대통령을 방문, 회담하고있다。 【멕시코시티 20日AP聯=聯合】

非同盟회의서 한국支持 약속

수출品目타진·合作투자 길터

한편 철저한 反共국가인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대통령이 양국이 반공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칠레는 南美최대의 교역국으로서 우리에겐 경제적인 주요성을 갖고있다. 칠레는 지난해9월 자유무역정책에서 보호무역정책으로 旋回, 81년까지 수입량이 1억달러에 달해왔으나 금년에는 수요가 급격히하락하여 5천만달러에 머물고있다. 칠레는지하자원이풍부한 경제잠재력이 있는 국가로서 金총리는 칠레와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멕시코는 中美최대국가로서 니카라과를 비롯한 인접국가와 칼리브海지역의 국가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이번 巡訪 4개국중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産油國인 멕시코는 세계경기침체로 원유수출이 부진하여 경제비상조치를 취하고있지만 경기불황이 풀리면 교역이 증대될 전망이다.

金총리가 멕시코의 정부및 의회지도자들에게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이들의 이해를 구한것은 카리브해지역의 10여개국을 일일이 방문한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풀이할수 있다.

한편 金총리의 이번巡訪에 三星 大宇 럭키 曉星 鮮京그룹의 책임자들이 비공식으로 수행, 방문국지도자및 기업인들과 접촉을갖고 구체적교역증대 가능성을 타진한것은 이들 국가들과의 통상증진에 크게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三星과 大宇는 이번 기회에 상당한 商談실적을 올렸으며 그밖의 商社들도 이 지역에 수출가능품목을 직접 확인하고 각종품목의 商談을 가졌던것으로 알려졌다.

金총리의 이번 南美방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지역에대한 人力진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했다. 우리나라는 이곳 현지실정에대한 정확한정보가 없어 막연하게 농업이민에만 치중했으나 실제로 현지에 나간 교민들이 도시로 집중하는바람에 당사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사례가 적지않았다. 그러나 이번 金총리南美순방에서는 농업분야뿐만아니라 현지주민의 고용, 당사국에 도움을주는 합작투자진출방식이 유망하다는점을 확인하게됐다.

아뭏든 金총리의 이번 순방은 이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순방국지도자들과 일련의접촉을통해 상호신뢰기반을 넓히고 開途國간의 공동번영이란 共感帶를 형성했다는점에서 큰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될수있다. 【멕시코시티=河長春특파원】

◇故프레슬리 佛서 人氣 지금은 故人인 엘비스·프레슬리가 프랑스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의 각 가정에 장식되어있는 프레슬리의 음반, 카세트, 엘비스의 모양을 딴 위스키 병들。【파리航空便=聯】

모기로 말라리아豫防 연구

1마리가 다른모기 百57마리 먹어

인도과학자들은 다른모기들을 대량으로 잡아먹고사는 한 특수한 모기종을 이용하여 말라리아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고.

인도남부 폰디체리에 있는 병원균전염예방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최근 인도의 의학보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폴렉스·루트지아·푸스카누스(CLF)라불리는 이 동족상해모기는 한마리가 말라리아나 필리아병을 옮기는 다른 모기를 평균 1백57마리나 먹어치운다는것. 이보고서는 이 CLF모기가 다른 모기들과 같은 장소에서 번식할수있으며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않기때문에 대량으로 번식시키면 말라리아등의 병을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뉴델리=聯】

7세少年 샌터할아버지에 쓴 편지

失職아버지 일자리얻어 幸運

「장난감과 털이 박힌 카우보이모자와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주세요」7세된 데니·파렐소년이 샌터할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소년의 아버지 데이비드·파렐씨(42)에게 일자리를 얻게했다.

데니소년의 편지는 캔자스市우체국에 접수된 3백여통의 배달불능편지 가운데 하나였는데 샌터할아버지에게로 부쳐진 이들 편지는 캔자스市공원오락과의 샌터우편함 프로그램에 보내져 담당자들이 원하는 사람들로하여금 열람케했다.

그중 데니소년의 편지는캔자스·시티·타임즈에 실렸는데 그후데이비드씨집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전화가 쇄도하는가하면 사람들이 선물과 장난감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통에 가족들을 놀라게했다는것. 지난8월부터 실직상태였던 데이비드씨는취직이 급선무였는데 아들녀석의 편지덕분에 일자리를 얻게돼 난생처음 즐거운 크리스머스를 맞게됐다」고 함박웃음. 【오버랜드·팍(美미주리州)=聯】

海外토픽

◇熱狂…宇宙戰爭놀이 最近 프랑스 어린이들사이에 熱狂的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電子오락기구인 宇宙戰爭놀이 장난감。 【키스톤=聯】

太陽熱차량 壯途에

★두濠洲人, 濠대륙횡단나서

2명의 濠洲人이 태양열로 가동되는 차량을 이용, 호주대륙횡단에 나섰다고.

「조용한 성취자」로 명명된 이 차량은 무게1백50㎏, 높이 1m로 섬유유리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붕은 태양열을 흡수하기위한 여러 태양열전지들로 뒤덮여 있는데 이들은 호주서부해안의 스카버러에서 동부해안의 시드니로 출발, 사막을 포함한 4천5백㎞를 4일동안에 횡단한다는것. 【퍼드=聯】

故國의 아빠 못만나 精神病

美서 망명생활중인 폴란드 소년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폴란드소년 바다우스·비엘레키군(8)은 고국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조속히 재회하지 못한경우 삶의 의욕을 잃고 죽게될지도 모른다고 의사들이 우려.

비엘레키군은 2년째 헤어져 살고있는 아버지를 다시는 만날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있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이 소년의 심신이 아버지와의 이별로 지극히 쇠약해졌으며 거의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다면서 부자간의 재회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진단.

폴란드적십자사는 비엘레키군의 아버지 미레크씨가 출국허가를 받을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소년의 상태와 증세를 폴란드당국에 통보했다고. 【보스턴=聯】

公害정신고통 增加

★日人들, 오염自體보다심각

일본국민들은 '81회계연도(81·4~82·3)동안 환경오염자체에 대한 불평보다는 주변환경때문에 느껴야하는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대한 불평을 제기하는 수가 크게 늘었다고. 【東京=聯】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首都圈…균형開發 시급하다

人口…서울은鈍化、衛星도시는 크게늘어

庶民생활근거지 거의 서울 / 出勤등 하루52만여명 이동

李兌一박사「서울·주변지역상호작용」연구

首都圈에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둔화현상을 보인 반면, 위성도시인 安養, 富川, 城南, 水原, 仁川, 議政府등은 최고 17%까지 인구가 급증했다. 또 이들 6개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일원에서 하루에 서울을 들락거리는 사람은 약52만명이며 6개도시의 주민중 15%정도가 의류와 가구, 구두, 가전제품, 보석, 시계등을 사기위해 서울로 온다.

한편 저소득층이나 근로자들이 위성도시에 주거지를 두고 직장이나 생활기반은 서울에두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교외로 주거지를 옮기는 서구형과는 다르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국토개발연구원(원장 金義遠)의 수석연구원 李兌一 박사가 6개위성도시와 始興, 華城, 坡州, 高陽, 楊州, 廣州등 10개군의 주민1만4백50가구 4만8천6백26명을 상대로 한 「서울과 주변지역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결과 밝혀져 수도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금년 인구는 지난10월1일현재 8백91만6천4백81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4백55명이 늘어나 2.77%의 증가율을 보였으니 이증가율은 지난해의 증가율 3.69%보다 0.97%가 둔화된것.

그러나 위성도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80년 현재 安養의 17%를 최고로 富川이 13%, 城南이 9%, 水原과 光明이 7%, 議政府가 6.8%, 仁川이 3.9%늘었다.

이들중 仁川, 水原등의 인구증가율이 낮은것은 도시가 비교적 안정돼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도일대에서 매일서울로 드나드는사람은 약31만명인데 이밖에 유학, 오락, 친지방문등의 이유로 드나드는 사람까지 포함하면52만명이 서울로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시의 서울유입인구의 대비는 城南市가 14.9%로 가장 높으며 富川(12.1%) 議政府(10.7%) 安養(9.8%)순이었으며 仁川과 水原은 각각 5.5%와 5.2%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수치는 城南, 富川, 議政府등지의 주민들 생활이 서울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뜻하며 仁川과 水原의 서울의존도는 낮은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왕래목적은 출근및 사업이 41.6%로 으뜸이었으며 물품구입과 통학이 각각15.2%와 13.9%였으며 오락 혹은 친교의목적이 10.9%였는데 다른곳으로 가기위해 서울을 경유하고 있는 비율도 5%나돼 교통망이서울중심으로 편성돼있음을 반영하고있다.

서울왕래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전철통과지역과 그렇지않은곳의 차이가있지만 전체로는 서울시내버스 이용이 31.8% 시외버스 29.8% 전철 27.7% 기차 5.4%인데 전철운행지역 주민중 12.9%가 전철운행이후에 현주거지로 이사를 온것으로 밝혀져 전철운행이 주민의교외이주를 촉진하는 큰변수임을 알수있다.

한편 서울을 드나드는 주민들중 약30%가 鍾路區와中區를 최종목적지로하고 있었는데 이는 鍾路, 中區가 아직 서울만의 중심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의 핵심적인 상업기능을 하고있음을 시사한다.

또 永登浦區를 최종목적지로 하는사람은 11.5%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지역이서울의 가장 강력한 부도심으로 서울의 서남부지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仁川과 水原을 제외한 나머지 4개시의 경우 전에 서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계속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음이 뚜렷했다.

한편 서울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직업구성을 보면 대개 기능, 생산직, 하위사무직, 건설업관계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데 이를 서구도시의 교외화현상과 비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외화는 도심의 주민환경악화를 피해 교외로 이동한 고소득층이라기 보다는 대체로 서울의 높은 땅값등 타의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은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들지역의 주민구성및 특성을보면 전주거지가 서울이었던 사람은 城南市가 50.6%, 富川이 22.2%, 安養18.3%, 議政府 14.1%순이었으며 仁川과 水原은 그다지 높지않았다.

이들 6개도시주민들의 구매행태에 대한 조사역시 水原, 仁川과 나머지 4개도시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해주고 있는데 식료품이나 연탄등 일상용품의 경우 6개시모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의류, 구두, 가구, 가전제품, 보석, 시계등의 구입시에는 서울을 왕래하는 주민이 평균 15%이상인데 이경우에도 水原과 仁川市 주민들은 자체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나머지 4개시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鄭棠鎬기자】

전국土地·林野대장電算化

내무부、84년까지 / 去來상황·課稅자료 한눈에

내무부는 21일 전국의토지 및 임야대장의 기록사항을 오는 84년까지 전산화하기로 했다.

토지관리업무를 과학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추진하는 이계획은 전국2백26개 市·郡이 관리하는토지와 임야의 기록을 모두市·郡·區전산실에 수록시키고 내무부본부의 주컴퓨터에 연결시켜전산통신망을 구성, 내무부는 물론 관련부처가 모두 활용할수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계획에 의하면 83년까지는 서울·釜山·京畿·忠北·全南·慶北등 6개시도의 1천7백47만9천필지, 84년에는 大邱·仁川·江原·全北·忠南·慶南·濟州등 7개시·도의 1천3백92만필지등 전국의 토지·임야를 단계적으로컴퓨터에 입력시키게된다.

전산기에 수록되는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 소재지번 면적등 18개 항목으로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전국에 있는 소유토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즉석에서 확인할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아직 전산실이 설치돼있지않은 大邱·仁川·全北등 7개시·도에는 83년까지 전산기를 도입하고 내무부에는 84년까지 전산실을 설치, 전국의 전산통신망을 갖추기로했으며 전산담당기구도 내무부의 계를 과로, 시·도는전산담당관실로 확대, 전문요원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전산화계획이 완성되면 내무부전산실이 전국의 토지관계정보를 집중관리, 개인 법인별 토지소유현황과거래상황등비롯, 토지거래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자료를 건설부·농수산부·국세청등 13개관련부처에서 직접활용할수 있게된다.

내무부는 그러나 전산기의 사용을 과세자료나 통계등필요한업무외에 남용되거나 악용될부작용을막기위해 전산기의 운영관리규정을마련, 사용을 엄격히 통제할것이라고 밝혔다.

결혼날 新婦달아나 / 30代신랑 飮毒자살

【井州】21일상오1시께 전북井州시上洞405 이재남씨(42)집에서 이씨의동생 재학씨(30)가 결혼날 신부가 달아난것을 비관,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것을 형재남씨가발견, 아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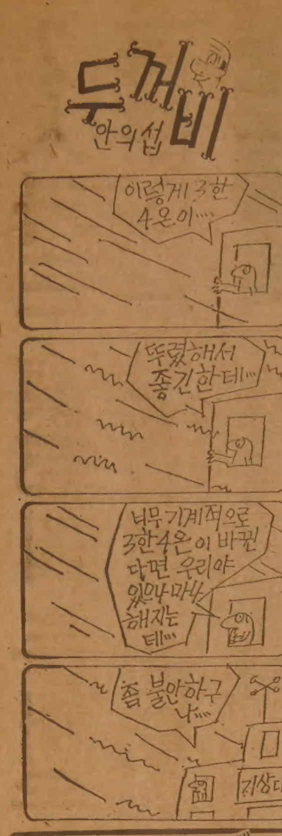
切斷손가락 10개 동시에 接合수술 / 慶北大、국내최초

【大邱】慶北大의대부속병원이 국내최초로 잘라진 손가락 10개의 동시접합수술에 성공했다.

이병원 정형외과 朴秉哲교수팀과 성형외과 白鳳壽교수팀은 종이절단기에 양쪽 손가락 10개를 모두 잘린 大邱교도소 복역수 具모씨(28)의 손가락을 지난18일 하오7시30분부터 다음날인 19일 하오2시까지 18시간30분동안 수술, 원상태로 접합시켰다.

손가락이 잘린 具씨는 지난18일 하오2시께 기결복역수 작업장에서 종이절단기로 인쇄용지를 자르다가 양쪽손 엄지손가락 2개는 둘째마디부터, 나머지8개의 손가락은 첫째마디부터 모두 잘려나가 이날 하오3시께 병원에 입원했었다.

한편 수술을 집도한 白교수는 『수술결과는 5일이 지나야 확실히 알수있기때문에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며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접합수술은 잘린지 3~4시간이내에 수술을해야 성공률이 높은데 具씨의 경우 사고가난지 6시간정도 지난뒤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聯合】



"強制의약分業실시"決議

醫保논쟁 새局面에

木浦 약사회

【木浦】전남木浦시 약사회(회장 [illegible])는 21일 내년1월부터 현재실시중인 임의의약분업을 강제의약분업으로바꿔실시해야한다고 결의함으로써 한동안 조용하던 의약보험논쟁이 새로운 국면을맞게됐다.

木浦시 약사회는 이날모임을갖고 강제의약분업실시를 촉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않으면 지난6월 대한 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강력히 시행한다는등 5개항의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는 지난6월 1차총회에서 제2종의료보험 적용지역에서 강제의약분업이 실시되지않으면 전국적으로 약국의 문을 닫고 2차총회에서는 약국재개여부를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했었다.

지난 7월1일부터 木浦시가 제2종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자 약사회는 강제분업을, 대한의사회는 임의분업을 각각 주장했고 木浦시 약국들이 문을닫는 사태에까지 이르자 보사부가 중재에 나서 지난7월부터 실시해보고 그결과에 따라 강제 또는 임의분업을 결정키로 했었다.

木浦시 약사회는 6개월의 유보기간이 거의끝나자 강제의약분업의 실시를 주장하게 된것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회는 유보기간이 거의 끝난 현재까지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있다. 【聯合】

山淸、上水道공사싸고 收賂 / 面長·郡계장 구속

【晋州】경남 山淸경찰서는 21일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공사를 부탁받고 돈을받은 山淸郡生比良面 면장 裵인환씨(55)와 山淸군청새마을과 개발계장 李회성씨(47)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裵씨는 지난3월중순께 生比良面可樓里 법평부락 이장 임상기씨(42)로 부터 이마을에 간이상수도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았고 李씨는 지난3월중순 山淸邑[illegible]洞 마을이장 김길묘씨(38)와 새마을지도자 정재수씨(50)등 2명으로부터 역시 마을간이상수도공사와 관련, 교제비로 20만원을받은혐의다. 【聯合】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대학생 放學中 아르바이트위해

防犯대원 채용키로

派出所에 2명씩

치안본부는 21일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부산등을비롯한 대도시에서 대학생을 방범대원으로 채용하기로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주어 학자금을마련토록 도와주고 경찰의 애로사항과 업무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것인데 전국시·도경은희망학생을 받아 주거지에 가까운 파출소에 2명씩 배치하고 일당 5천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경은 관내23개 경찰서에 평균30명의 대학생을 희망받아 27일부터 내년1월25일까지 1개월간 방범대원으로 채용키로 했는데 이날 현재 각대학 학생처를 통해 희망하고있는 학생은 7백여명인것으로 알려졌다.

◇아가씨샌터클로즈 登場 세모의 백화점가에 샌터클로즈아가씨가 등장했다。장사속으로 만든 마네킹이지만 샌터클로즈아가씨의 밝은 미소는 물건고르기에 정신이없는 손님들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이 미소를 사서 이웃에게 선사하는 것은 어떨까。 【21日 L쇼핑센터 1층】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太白에 종합産災병원

근로복지公社 3백病床규모 3월에 신축

【太白】근로복지공사는 내년에 太白시에 3백병상 규모의 종합산재병원을 새로 건립키로 했다.

21일 근로복지공사 장성산재병원(원장 조창원)에 따르면 현 병원건물은 18년전에 건립한데다 너무 협소해 이를 매각하고 부지1만평을 새로 구입, 내년3월경에 1백여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6층(3백병상) 규모의 현대식 종합병원을 신축한다.

새로 건립될 종합병원 시설규모는 현재의 15개과에 정신신경외과·간기능검사·병리실등을 새로 설치, 광산지구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확대키로했다. 【聯合】

6·25동란중포로 生死여부 확인을 / UN、停戰委서

UN군사령부는 21일 상오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415차본회의에서 지난6·25동란중 행방불명된 UN군및 국군포로의 생사여부를 확인해줄것과 북한에억류중 사망한 포로의 유해가 발견될경우 빠짐없이 송환해줄것을 공산측에 촉구했다.

班常會 내일열어

내무부는 이달 정례반상회를 성탄절인 25일을 피해 23일 하오7시30분 「가족과 함께 조용한 연말연시보내기」란 주제로 열기로했다.

「江陵 오뚝이」 鏡浦臺 부산처녀 횟집 朴福順씨

"東海태양 의지하며 20년 世波이겨"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오뚝이라고 한다. 江陵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鏡浦臺의 부산처녀횟집주인 朴福順씨(37·사진)를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일어나는 「오뚝이」라고 부른다.

가냘픈 얼굴에 고운피부, 눈가의 잔잔한 미소에선 17살 소녀의 몸으로 객지에 와 가게를 일으켜세운 억척스러움을 찾아볼수 없다. 외유내강인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는게 중론인모양이나 그녀의 지난생활은 밀려오는 파도와의 싸움이었다.

朴씨의 고향은 부산. 20년전 고생끝에 17살의 어린몸으로 6식구를 이끌고 江陵으로 왔다. 가진거라곤 단봇짐에 2백50원이 전부였다. 3일만에 빈털터리가 됐다. 오빠와 부모가 있었으나 투병중이거나 사업에 실패,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다.

며칠간 사촌언니의 포장마차일을 도와주다 시계를 팔아 포장마차를 마련했다. 직접 「부산처녀집」이란 상호를 써붙이고 두 어동생을 부여안고 한바탕 울었다.

2년만에 점포를 세내 식당을 차렸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세파가 아닌 진짜 파도가 밀려와 모든것을 쓸어갔다.

다시 포장마차를 차리고 억척스럽게 일했다. 괴롭고 서러울때도 많았으나 아침마다 수평선위로 얼굴을 내미는 미소띤 붉은 태양이 큰 의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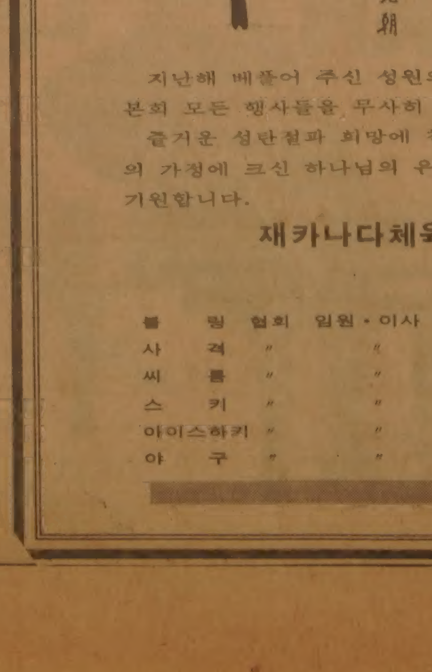
5년만에 집도 마련했으나 오빠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빚을 짊어지게됐다. 죽을 결심으로 1주일간을 굶었으나 아침마다 다시 떠오르는 태양의 신선함이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발휘했다. 2년만에 빚을 청산하고 번듯한 가게도 샀다.

그의 억센 생명력과 함께 「부산처녀횟집」이란 이름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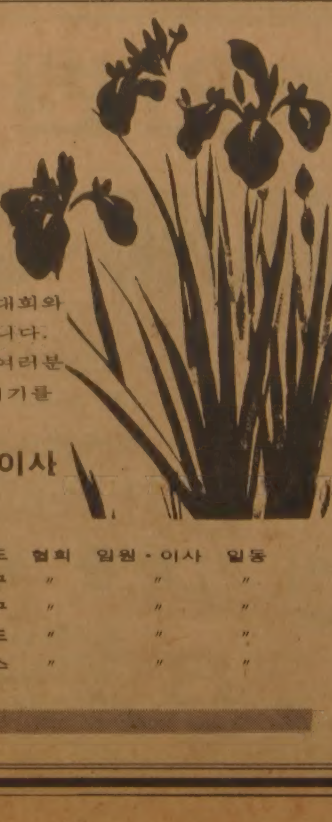
『동해바다의 거칠음이 저에게 세파를 이겨내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수평선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단순히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는 서편으로 졌다가 다음날 다시 얼굴을내미는 태양에게서 쓰러지지않는 강인함을배웠읍니다』 【江陵=方敎俊기자】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新正
新春元朝



지난해 베풀어 주신 성원의 덕으로 체육대회와 본회 모든 행사들을 무사히 치루게 되었읍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희망에 찬 새해에 교민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카나다체육회 임원·이사

볼링	협회	임원·이사	일동		유도	협회	임원·이사	일동
사격	〃	〃	〃		축구	〃	〃	〃
씨름	〃	〃	〃		탁구	〃	〃	〃
스키	〃	〃	〃		태권도	〃	〃	〃
아이스하키	〃	〃	〃		테니스	〃	〃	〃
야구	〃	〃	〃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 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太平洋 감격의 5連霸

남자는 現代 첫 頂上에…올 2冠王

대통령盃쟁탈 농구 폐막

2人가드…東邦에 두꺼운 7點壁쳐 太平洋

海龍과 同點12번…趙明洙기용 得勢 現代

◇頂上이 보인다 남자농구의 정상을 가린 現代-海龍전. 現代의 李文圭⑤가 海龍의 李原宇(21번)를 제치고 바스킷을 튀겨나온 볼을 쳐내고있다.

제1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 남녀농구대회는 여자부서 太平洋化學이 5連霸를 이루고 現代가 78년 창단이래 남자부 첫패권을 차지한 가운데 21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됐다.

이날 여자부 결승전에서 太平洋化學은 洪惠蘭 洪英順두 가드의 중거리슛으로 東邦生命을 57-5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 결승전서 現代는 전반 12번의 타이를 거듭하는 격전끝에 장신 趙明洙를 기용한후 리드를 잡고 朴守敎 辛善宇가 게임을 잘 이끌어 海龍을 94-77로 꺾었다.

東邦生命은 기를 쓰고 추격했지만 7점차에서 묶였다. 47-40으로 처음 7점차까지 점수를 좁힌 東邦生命은 7점의 벽을 넘어서려고 金和順과 孫英淑이 필사적인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7점차로 무릎을 꿇었다.

太平洋은 洪惠蘭 洪英順의 슛이 초반부터 호조를보여 金和順혼자 추격을편 東邦에 전반35-26으로 앞섰다. 후반 東邦의 車良淑은 한점도 올리지 못했으나 대타로 들어온 孫英淑이 金和順을도와 분전했다.

現代와 海龍의대결은 초반 6-6 첫타이스코어를 이룬후 28-28까지 12차례나 타이를 이루는 접전을거듭했다. 現代는 朴守敎 李忠熙, 海龍은 李原宇 黃有夏의 슛으로 일진일퇴를벌였으나 現代가 趙明洙를기용하여 李長洙와 함께 골밑 제공권을잡자 순식간에 점수차가 40-30으로 벌어졌다.

現代는 전반2분20초를 남기고 朴守敎가 발목부상으로 물러나 위기를 맞는가했으나 다른 주전들의 슛이 고루터져 54-39로 전반에서 승부를 굳혔다.

海龍은 후반 신장 열세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중거리슛 위력도 現代에 뒤졌다.

반면 現代는 리바운드 우세를 속공으로 잘연결시키고 辛善宇가 어시스트에서분전, 낙승했다.

◇최종일결승전

▲여자부

태평양화학 57 (22-35 / 24-26) 50 동방생명

▲남자부

현대 94 (40-54 / 38-39) 77 해룡

'82 現場 ①

82년이 저문다。제9회 뉴델리 아시안게임 개가·金得九 비극·체육부 탄생·프로야구 출범등 대형 화제와 사건이 잇따른 한해였다。82년 국내스포츠계를 장식했던「現場」을 시리즈로 돌아본다【편집자註】

金得九절명·프로복싱大沒落

"사나이는 이름을…" 매스콤 異例集中

「사나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illegible] 金得九 [illegible]

집중적으로 전세계의 매스컴을 탄 인물도 없었을 것이다。지난 11월14일 WBA 라이트급 챔피언 레이·맨시니에게 도전했던 金得九는 뜻을 이루지 못한채 라스베이거스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투지와 집념은 세계프로복싱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金의 세계도전은 당초 회의적이었다。

강타자인 맨시니는 무하마드·알리, 슈가·레이·레너드등 인기 복서들이 떠난 美國 복싱계의 새로운 기린아 였다。맨시니는 美國 매스컴이 가장 [illegible] 복서로 [illegible] 들을 갖고 있었다。라이트급이면서도 미들급 선수와 같은 강한 펀치력을 갖고 있었고 화끈한 인파이터로 흥행가치가 높은선수였다。

맨시니에 비할때 金得九의 면모는 상대적으로 초라했다。WBA 랭킹1위였지만 동양무대에서만 알려졌던 金의 타이틀획득가능성은 20~30% 정도였고 초반에 무참한 KO패로쓰러질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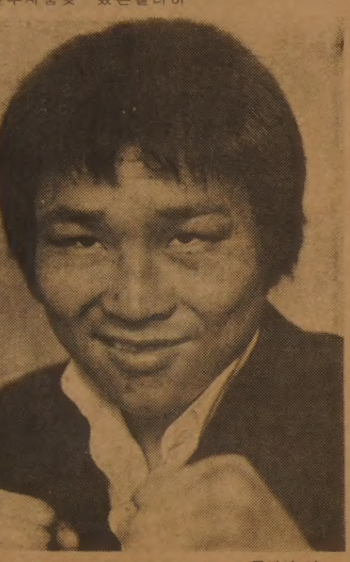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첫 라운드부터 金이 적극공세로 주도권을 잡아나가 10라운드까지는 막상막하의 열전을 기록했다。14라운드에 치명타를 맞고 쓰러져 뇌수술끝에 숨을 거두었지만 金은 세계복싱팬들에게「한국인의 투혼」을 심어놓았다。또한「金得九 링사고」를 계기로 WBC와 WBA는 구체적인 선수보호대책을 세우게 됐다。金得九는 세계정상에 도전했던 어떤 도전자 보다 잘싸웠다。그러나 그의 세계도전 실패로 한국 권투는 세계도전에서 8連敗의 쓰디쓴 기록을 남겨 놓았다。金得九충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11월28일에는 유일한 세계챔피언이던 金喆鎬가 홈링에서 베네수엘라의 라파엘·오로노에게 KO패,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을 넘겨주어 마침내 한국은 無冠의 복싱강국으로 전락했다。

82년은 한국 프로복싱최악의해였다。1월16일 崔忠日의 세계도전실패로 불길한스타트를 보이더니 3월초 가네히라 약물스캔들이 국내 복싱계를 강타했다。세계 타이틀전때 日本교에이(協榮)프런모션대표 가네히라씨가 약물을 상대선수에게 몰래 투입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기사가 日本의 주간잡지 週刊文春에서 터져나왔다。가네히라 추문이 채 가시지않은 가운데 4월말에는 泰國의무명복서가 다른 선수의 이름을 빌어 한국에 원정, 석연치않게 KO패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물의를 빚었다。

5월7일에는 필리핀의 앤디·발라바선수가 당시한국 주니어플라이급 1위의 申喜燮(18)에게 10회 2분35초만에 KO패당한후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입어 나흘만에 세상을 떠났으며 9월4일에는 前세계 챔피언金泰式이 大邱서 멕시코의 라미레스와의 경기에서 머리를 다쳐 가까스로 목숨만은 건졌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로스포츠였던 권투는 올해첫선을보인 프로야구의 인기에 눌려 위축된데다가 추문과 충격적인 사건이 겹쳐 만신창이가 됐다。

악몽의 82년도 며칠 남지않았다。83년에는 얼룩진 사건들을 말끔히 씻고 새출발을 다짐해야 하겠다。【金仁圭기자】



◇本社 방문때의 모습 죽어서 이름을남긴 金得九。다시는 이모습을 볼수없게되었다。금년 3월 동양타이틀을 차지한후 본사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얼룩진事故…無冠의 強國된 最惡의해

青少年 축구

한국·中共 비겨

이라크와 無勝負돼도 本選에

【방콕=본사국제전화】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은 20일밤 방콕국립경기장서 열린 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 대회 4개국 최종결승리그 2차전서 강호 중공과 1-1로 비기고 중공과함께 1승1무로 공동선두를유지했다。

한편 앞서벌어진 이라크-아랍에미리트전에서는 이라크가 2-1로 승리, 1승1패를 올림으로써 한국은 남은 對이라크전에서 비기기만해도 2팀이 나가는 내년멕시코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출전권을 얻게된다。

한국은 이날 중공과의 대전에서 전반을 득점없이 비긴후 후반21분께 중공문전에서 혼전중 FW 李基根이 헤딩슛을 성공시켜 1점을 선제했다。그러나 한국은 경기종료5분을 남겨놓고 중공에 페널티킥을 허용, 아깝게 동점을 내주었다。

◇2차전

한 국1 (0-0 / 1-1) 1중 공
(1승1무) (1승1무)
이라크2 (1-0 / 1-1) 1아랍에미리트
(1승1패) (2패)

世界대학생選手權

남녀卓球 우승

西獨·日本 완파

한국남녀 대학생탁구팀은 17일 브라질의 포르토레자에서 벌어진 제4회 세계대학생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모두 우승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金浣·金琦澤등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한국남자대학팀은 이날결승에서 西獨팀을 5-0으로 완파했으며, 여자팀은 여자단체리그 최종5차전에서 일본을 3-0으로 제압, 5전전승으로 우승했다。

남녀개인전은 17일 시작, 20일까지 계속된다。

◇남단체결승전

한 국 5-0 서 독
權五澤 2-0 넬바치
金 浣 2-1 웨어힘
金琦澤 2-0 스텔바
金 浣 2-0 넬바치
權五澤 2-0 스텔바

◇여단체리그최종전

한 국 3-0 일 본
金貞美 2-1 다찌하라
池男容 2-0 야마시다
朴銀珠 2-0 이께다

張喜榮씨 勳章추서

力道발전에 공헌

정부는 21일 한국스포츠발전에 크게 기여한 故張喜榮전대한역도연맹전무이사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을추서했다。

李源京체육부장관은 21일 상오 순화동 [illegible]를 대신해 故張喜榮전무이사의 미망인 李順子여사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여했다。

고인은 67년 역도계에투신 14년동안 한국역도의수준향상과 국제적지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다 지난해 12월19일 46세로 타계했다。

나브라틸로바 선정

올最高 테니스選手

【뉴욕AP=聯】프랑스오픈과 윔블던테니스선수권대회우승자인 美國의 테니스선수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양(26)이 79년에 이어『世界테니스誌』가 선정한 금년도 여자테니스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美텍사스州에 사는 왼손잡이 나브라틸로바양은 금년 18개대회중 15개를 석권하고 총 93게임에 출전, 90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지난 79년 1위로 선정됐으며 80년과 81년에는 3위를 기록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9>

朴婉緒 作 金光培 畫

부드러운 겨울㉕

「왜 그래요?집에 무슨 일이 있는거 아녜요?」

「무슨 일이 있긴요。」

「근데 왜 조금도 좋아하는 것 같질 않아요。내가 좋은 일 해준게 아니라 못할 노릇 해준 것 같은 기분이들 지경이니…」

「원 사모님도, 너무 바라고 바라던게 하도 쉽게 이루어지고 보니까 좀 얼떨떨하긴 하지만요, 그럴리가」

「유기사, 그 일 그렇게 쉽게 된거 아녜요」

수지가 발끈했다。

「사모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뭐 말주변이 없어서…오늘도 제처는 꼭 찾아뵙고 인사 드리라고 하는걸 빈 손으로 찾아뵐 용기가 도저히 안나서…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린다는게 그만…첫월급타는대로 사모님댁부터 찾아뵈야한다고 제 처한테단단히 일러놓긴 했읍죠만…」

「유기사, 그쯤 해두고, 몸성히 잘 다녀와요」

수지는 뚝히지 않게 화제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간 게 역겨워서 다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사모님, 제가 뭐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읍니까?」

유기사가 허둥지둥 매달렸다。

「글쎄, 얘는 얘대로 쓰고 낯도 안나는 부탁은 사양해야할까봐요。뭔데요?」

「아, 아닙니다」

「뭐나니까 말해봐요?」

「아, 아녜요」

그리고 일환이는 얼른 전화를 끊었다。일환이가 수지에게 부탁하려는 건 오목이에 대해서였다。오목이는 요새 그 어느때보다도 건강하고 씩씩하지만 일환이는 오목이의 몸이 얼마나 형편없이 못쓰게 돼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첫월급 받는대로 병원부터 가봐야돼。의료보험도 되니까 돈이 많이 안들거야。알았지?」이렇게 신신당부해 놓긴 했어도 오목이가 그대로 할것같지가 않아 마음이 안놓였고, 떠날 날이 가까와질수록 불안은 고조됐다。

그렇더라도 오목이의 건강을 감히 수지에게 부탁할것을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떠난다는 인사를 하기도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나서 억지로 하다말고 별안간 그런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마터면 큰 실수 할뻔 했어。그는 불에 덴 것처럼 내려놓은 수화기를 보고 이렇게 뇌까리며 공중전화앞을 떠났다。

부탁할 데도 의지할데도 없는 건 당연하지。오목이나 나나 고아니까。아무리 그렇더라도 하필 그여자에게 부탁할 마음을 먹다니。그는 커다란 몸을 우울하게 웅숭크리고 더부룩한 머리를 쓸어올렸다。내일 모래면 떠나게 돼있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은 전혀 일지않고 남겨놓고가는 뒷일에 대한 근심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목이는 짐을 싸고있었다。트렁크도 새거고, 내복도 겉옷도 다 새거였다。

「입던 거면 어때서。괜시리 그런데다 없는 돈을 쓰고 그래?」

「어머! 없는 돈을 어떻게 쓴대요。있으니까 썼지。그리고 나라 체면도 있고 비행기 체면도 있지 당신 입던 게 그게 어디 옷이유?요샌 그런 누더긴 거지도 안집어가요。」

오목이는 이렇게 싸가지없이 히히덕대면서 바퀴 달린 트렁크를 이리 밀어보고 저리 밀어보고 했다。일환이는 오목이의 히히덕대는 게 못마땅한척 눈살을 찌푸렸지만 속으론 그녀가 그렇게 명랑하게 굽기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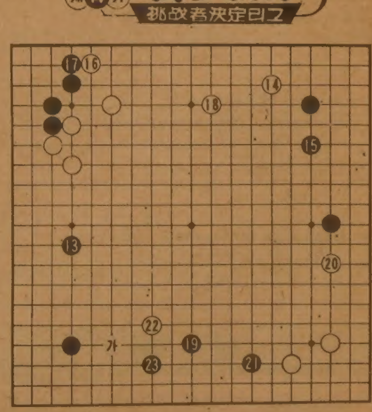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6局 第2譜 13~23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姜 勳 〈2勝〉

黑(7段) 盧永夏 〈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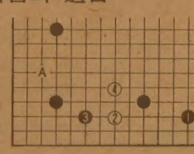
黑13까지 마치 한번두었던 바둑을 복기라도 하듯이 제꺽제꺽 두어졌다。白14에 姜4단은 비로소 10분을 소비하더니 바로 18까지 상변에 세력권을 형성했다。좌상귀 외팡을 배경삼은 당연한 작전이다。

黑도 이에 지지않고 좌하일대에 세력을 펴려고 19의 요소를 점령, 세력대 세력의대결이 되었다。

盧7단은 黑21로「가」에 굳혀볼까 망설인 모양이고 姜4段은 白22에 고삼을 했다。자기쪽인 상변白세보다 크게 팽창할 이곳 黑세에 무척 신경을 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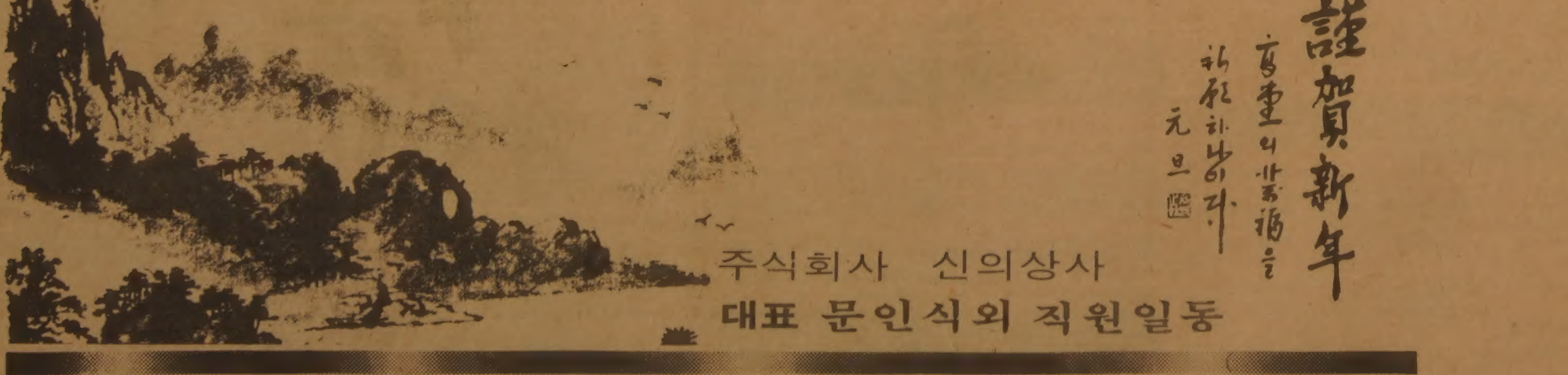
그러나 국후 검토때 曺名人의 의견을 빌면 白22는 문제가 좀있었던 모양이다。

勢삭감의 適否



黑세만 동떨어지게 따진다면 白22 즉 이곳도 성립되지만 상변의 白세까지 종합적인 밸런스를 생각해 보면 22는 참고도와 같이 白2로 갈라쳐야 한다。黑이 3으로 협공하면 물론 白4로 탈출하여 黑을 좌우로 양분하고 장차 黑A에 걸치는 수를 본것이 합리적이란 것이다。【一凡】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謹賀新年

주식회사 신의상사
대표 문인식외 직원일동

CASH & CARRY
Sincere Trading Co. LTD.
789—7544~7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토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계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템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7학년 남학생 공부 도와주실 분
영어, 수학 위주.
전화 : 767-1702(오후 6시이후)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좋은사람 구함. Full Time 주유소(Gain) 영주권자로써 1년이상 거주자. ◉877 Dundas St. W.(Bathurst St. 서쪽 300M)
내 방시간: 9am~3pm, 7pm~9pm

Part Time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전화 : 447-2116 (Mrs. 윤)

Donut Shop Casher 구함.
학생환영(스카보로 지역)
전화: 497-4221 Mrs 김.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Part time 스토아 캐쉬어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88-1634

입주하셔서 할머니를 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275-0339 Mrs. 임
(오후 6시이후 전화 요망.)

급히 아주머니 헬퍼 구함.
전화 : 532-1054 Mrs. 오

입주 또는 출퇴근하시면서 3살반된 애기 봐 주실분.
단. 담배피우지 않는분에 한함. ◉스카보로 북쪽.
전화: 496-1664 Mrs.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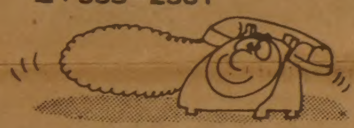
풀타임,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622-2643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가족같이 애를 봐주시며 지낼분 환영함.
전화 : 669-6438

Smoke & Gift 가게 풀타임 캐쉬어 구함.
오전9시~오후5시. 2180 Yonge St. 3층
M & M Shoppes. Mr. or Mrs. Dharsee. 내방바람.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실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Tofel Michigan Test 준비
아동학습지도(다년간 지도경험) Honour B.A.In Economics
최미경 전화: 242-4745(오후 6시이후)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G.R.Paterson Real Estate Ltd.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를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Montreal Trust Company Realtor.
플라자내에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는 투자가를 찾읍니다.
다운페이: $250,000이상.
딴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당신에 스페샬 리스트 Dave Lai
전화: 275-5555

주인이 정년퇴직으로 구두방과 빌딩매매
또는 가게렌트도 합니다.
803 St.Clair Ave. W. 전화 : 654-1455

Take-Out 햄버거 비지네스 팝니다.
Income: $85,000/Y ◉주6일 영업. ◉하루12시간 오픈
문의시간: 오전9시~오후9시. 782-6893 Peter.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수.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물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여자 룸 메이트 구함. 1 Bed-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 782-9777 (오후5시반 이후)

Office space for rent
1500 Sq.Ft. 1736 Queen St. W. 불에 타지 않는
안전창고 100 Sq.Ft. 전화 : 960-1888

아파트 써브렛. 3Bd. Rm. ◉Albion & Weston에 있는
새아파트. ◉리스: 83년 8월까지.
전화: 488-2436(B), 745-0409(R)

---

1 Bed Rm. 아파트렌트(서브렛)
Don Mills 지역. 월 $311.00
전화 : 447-1785

---

1 Bed Rm. 아파트 렌트. 교통 편리함.
싱글이나 부부에 적합.(Eglinton & Mt.Pleasant)
전화 : 488-1634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방세 놓음(Victoria Pk. & Finch)
1Room(월 120불) 여자분에 한함.
전화: 497-4221 Mrs. 김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총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수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불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8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휘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교민간의 경쟁과 상도의 ❷

그 문제점과 처방·비젼

김 철 수 (토론토실업인)

◆ 역사성·전체성·이성과 현실성·부분성·감정

오늘 상도의와 교민끼리의 경제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사고가 역사성, 전체성, 혹은 이성으로 다루지 않고, 현실성, 부분성, 혹은 감정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같다.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현대의 한국정치와 이조의 5백년 역사는 정치문제를 국민을 위한 IDEA와 IDEA, 혹은 정치적 이슈와 이슈의 논쟁 가운데서 정치적 이성에 의하여 해결되어진 것이 아닌 역사와 전체와 이성을 잃어 버리고, 현실과 부분, 그리곤 감정의 수라장이었으며, 지금이 순간도 마찬가지이다. 6.25의 비극은 이데올르기를 빙자한 이즘과 이즘의 단상대립이 아니라 총칼을 든 역사와 전체와 이성을 외면한 감정의 폭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혈육들을 서로가 죽였는가?

순간과 부분적 감정이 정권을 지지하고, 들러업고, 순간과 부분만을 판단한 감정이 회합의 단상을 장악하고,

교회의 목사를 지지했다 비난했다, 하는 식은 너무나 우리를 혼돈케 해왔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탓해 왔으며, 그래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아 왔는가? 우리 조상들이 범한 그 실수를 우리들은 진정으로 지금 범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당한 사업적인 문제를 사업적 방법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않고, 감정으로 상호비난하는것은 우리 조상들의 골육상쟁을 반복하자는 이야기이다. 또한 골목골목에서 혹은 분야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교포간의 사업적 경쟁을 지도자적 차원에서 인도하고, 조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얼마나 사업을 알고 있으며, 또한 경험을 갖고 있는가?

당신이 만약 사업의 분야가 당신의 전공분야와 다르며, 별로 경험도 없으면 당신집안에서는비난하거나 흥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사업의 지도자적 차원에서 인도하거나, 중재에 나서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사업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문제의 골목골목마다에서와 분야분야마다에 처한 개인적 특수성들이 있다. 이 특수성들을 이해함 없이 피해를 보는 듯한 한 교민을 위하여 다른 교민을 정죄할 때 그 정죄의 손은 올바를 수 없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다른 교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필자는 개인적 인신공격에 대한 감정이[illegible] 기해보다 문제들을 사고하고 유도하는 지도적 차원에 있는 교민들이 역사적 차원이나 전체를 굽어보는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순간과 부분을 확대하여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에 그만 가슴이 메어지는 것같아 며칠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고는 이성적이며, 역사를 보는 눈과 전체를 보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감정이 많으며 현실적이고, 주로 부분을 보는 사고를 갖고 있다. 아버지의 사고(역사성, 전체성, 이성적)와 어머니의 사고(현실성, 부분성, 감정적)의 조화와 순서가 한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많은 자녀교육의 실패가 이 조화와 순서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버지의 사고가 자녀에게 나무람이 되고, 교훈이 되어질 때 어머니의 사고는 침묵을 지켜주어야 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를 보살피고 위로하여 그 아버지의 교훈을 완성시키는데 용기를 넣어주는데 힘이되어야 한다.

그 어머니의 사고가 아버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한 자녀들 앞에서 정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부분과 현실에 치우쳐 아버지의 사고를 피하여 넘어설 때 아버지의 사고는 그 자녀 속에서 무의미하게 되어지며, 이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게 된다.

그 자녀는 혼돈(아버지의 것이냐? 어머니의 것이냐?) 속에서 어머니의 뿌리 없는 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역사를 보는 눈과 부분을 전체를 통하여 관찰하는 이성적 사고가 무의미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의 가정에서 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고질적 우리의 문제점들이며, 바로 그러한 고질적 병폐가 오늘 교민끼리의 경쟁문제를 다루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교민끼리 경쟁을 해도 되느냐, 아니 되느냐)는 원칙을 결정짓기를 원할 때 역사적 관점이나 전체를 통찰하는 이성적 사고가 동원되어야 하며, 현실 부분 감정은 억제되어야 하며, 침묵을 지켜 주어야 한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간에 서지 아니하고, 역사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며, 얼마나 부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체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얼마나 감정을 넘어서 이성적 사고에 참여한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훌륭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고에 나무람이 되며, 실망 좌절한 자녀에게 순간적 현실적 정을 넘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뿌리있는 사람으로 실족한 자녀에게 용기, 지혜, 소망을 불어넣어 아버지의 사고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며, 훌륭한 교민사회의 지도자는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일관하고 있는 경쟁(교민사회 속에서까지) 문제를 인정함에 있어 골목마다와 분야마다에서 일어난 치열한 교민끼리의 경쟁 때문에 낙오한 그 낙오자들과 고통을 같이해야 하는 아픔과 분노가 있을지라도 순간과 부분과 감정을 넘어서 역사와 전체와 이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고를 가진 자들을 괴로우면서도 인정하며, 성공하며 성장해 가는 그들에게 실족한 교민들을 잊지 않도록 유도하며, 그 낙오한 교민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실제적 도움의 길을 찾아 열어주어 교민사회의 이성과 감정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포용력을 가진 자인 것이다.

인류역사 속에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에 참여하는 그 사고를 순간과 부분과 감정을 넘어서 선택하는 자이며, 훌륭한 민족은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고를 가진 지도자에게 자기의 감정의 실족 가운데에서도 찬사를 보내는 민족인 것이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세계경제사에 없는 SUPER 성장의 배경은 바로 원칙과 합리성에 순종하는 일본국민들의 이성적 사고와 그 이성적 사고 때문에 낙오되거나 참여치 못한 국민들을 회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혜택분배에 나선 인간의 정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성과 감정의 조화와 질서를 이룬 것이다.

이성 때문에 진취성있는 뚜렷한 공동의 목표와 경제적 모랄이 형성되었으며, 인정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한 최대의 능률을 유도해낸 것이다.

◆ 경쟁을 인정하라

서기 1640년경 갈릴레오는 전통적인 천동설을 엎고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자기 생명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돈다고 증언했다.

법정을 떠나 나오면서 갈릴레오는 혼자 중얼거리기를 그래도 "이 순간, 지구는 돌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부인하는,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 넘기려는 재판장과 그의 추종자들까지 태운 지구는 지금 이 순간도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기를 정죄하는 재판의 모순과 억지를 알고 있었다.

바로 경쟁을 이 지동설과 비유해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경쟁은 인류역사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한국내뿐 아니라 이곳 이민사회나 개화된 사회, 미개사회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적용되는 진리인 것이다.

오늘 이 특정한 캐나다의 이민사회가 교민끼리는 사업의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미 교민끼리는 신문의 보도경쟁에서, 서비스경쟁에서, 상점의 위치경쟁에서, 상품의 질의 경쟁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교민사회를 태운 이민열차는 자기가 알게 모르게 경쟁, 혹은 과다경쟁의 현실 속에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범하고 있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인정하면서 인류는 천문학사뿐 아니라 과학, 문화, 문명에 엄청난 진보를 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한인끼리의 어떠한 형태의 경쟁도 할 수 있다는 인정 위에 우리는 새로운 한인끼리의 경쟁의 질과 경쟁의 모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냉정한 것같지만 역사 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천동설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전개된 어떠한 학설과 학문도 모순과 비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인끼리의 경쟁을 부정적이며, 정죄시하는 어떠한 사고나 주장도 자기모순과 부조리 속에 있게 되며 그것 위에 판정되어지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반목, 질시, 비난, 증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되어질 것이다. 한인사회의 교민끼리의 경쟁은 물론이려니와 과다경쟁(골목마다나 분야마다의 특수사정들 때문에)도 인정되어져야 한다.

◆ 가격경쟁과 Convenience Store.

우리는 Convenience Store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위치이다. 그래서 「Corner Store」라고도 한다. 만약 가격이 위주되어진다면 고객들은 큰 Supermarket에 가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이 Corner상점에 들어올 때 가격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 필요성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코너상점은 Corner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상점에 있어 주어야 한다.

세째로 친절해야 하며,

네째로 깨끗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 원리 위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문제의 핵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거나 역경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가격은 별로 중요치 않다. 필자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토착자본에 도전하며, 때론 교민의 사업체에 경쟁자로 등장되어지곤 한다. 가격경쟁이 들어올 때 오히려 이 지역으로 더욱 많은 고객이 보인다는 또 다른 각도에서 경쟁자의 Special을 내가 이용한다. 그리곤 지구력 있게 버틴다. 필자는 경쟁자에게 자본금으로 싸울 의사는 전혀 없다. 만약 그 방법 속에 말려들어 간다면 나는 사업가가 아니다. 나는 그 사업 속에 나의 기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감정이 충부하고 예민하고 성급한 우리들외 성격들인 것이다. 이 성격이사업 속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때 자기 스스로가 상도의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감정의 대립으로 나타나곤 한다.

속단은 금물이며, 인내와 이성이 있어야 한다. 왜 맥스나 베커와 같은 대회사들의 상점이 한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문을 닫는지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본금의 연약에서가 아니라, 위치에서, 물건의 구색에서 불친절등의 이유에서인 것이다. 서로가 가격인하를 먼저 해서는 안된다. 내가 할수 있으면 경쟁자도 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고객이 경쟁자와의 싸움을 유도한다. 많은 한인들이 이에 말려들어 간다. 코너 상점에서 가격따라 유동하는 고객이 실제로 얼마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는 환경이나 경쟁자의 도전에 철학과 깊이를 가지고 뿌리를 쥐는 사업자세로 임하여 긍정적 자세에 의하여 환경에 응전해야 한다.

교민끼리 가격경쟁이나, 때론 과다경쟁으로 유도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쟁은 서로가 피해를 본다. 그 피해를 알면서까지 경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감정이 아닌 실력대결로써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은 그 특정한 장소에서 한인끼리의 개인적 문제이지, 주위에서 흥분할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옆에서들 다 흥분하는 것같다.

지금도 아마 한국엘 가면 여름날 길에서 장기나 바둑을 둔다. 장기나 바둑을 두는 당사자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끼리 흥분하여 싸우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꾀꼴이 지금 이 한인사회에도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원함이며, 이것이 교민끼리 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 외세 앞에 한몸

필자가 도매상의 사업자금 때문에 한창 바쁜시간을 보낼때, 어느 유태인 사장이 나를 불렀다. 그리곤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이야기 해주겠다며 나에게 다음과같이 말했다. 지난밤에 유태인 도매상끼리의 회합이 있었다. 회합의 목적은 너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가 너를 서로 컬려고 싸웠지만 너를 키워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너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너는 빨리 너의 사업을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우리 유태인들 끼리도 치고 박고 서로 욕하며 싸움을 한다 그러나 외세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로 뭉친다. 바로그들은 그대로 행동했다. 아무도 필자를 배경으로한 이권을 놓고 그들 민족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외세였으니 그들은 외세앞에 하나가 된 것이다.

나는 이 원리를 우리 한인사회에 내놓는다. 상도의의 궁극적 문제점은 교포상점옆에 또다른 한인이 자기사업에 경쟁자로 등장한것이 있는것이 아니라 피할수 없는 그 경쟁을 맞이하여 어떻게 Fine Play를 했느냐 하는 것이며 한인상점끼리 치고박고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외세앞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 공동운명을 개척해 나가느냐가 문제이다.

외세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 상점에 오는 고객은 외세이다. 이 외세앞에 치열한 경쟁도 할수 있으나 피하는 것이 상호현명하다.

둘째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다 이 외세앞에 하나가 된다는 뜻은 반드시 하나의 공급자를 통하여 한 구매력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정치적 균형을 위하여 둘 셋 이상의 구매력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며, 유사시에 공급자들의 젖줄(시장)을 집중함으로 위협하는 수단을 써야 한다. 즉 겉으로는 단합이 안된 것 같지만 내막은 한 통속이다. 이러한 차원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세째로, 우리의 이권문제를 사회적으로 다루는 정치가들이다.

네째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다. 사실상 이들도 우리와 민족은 다를지라도 같은 형편에 놓여있는 동업자들이다. 될수 있으면 협력하는 편이 좋다.

◆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외세 앞에 경쟁자들은 하나가 되면 상호간에 좋다. 그러나 결코 협상이 가능치 못한 경우가 있다. 상호간의 인간성이나 상도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은 실력다툼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상점은 나쁜 위치에 있는 상점보다 그 기본적 실력면에서 유리하다. 나쁜 위치에 있는 상점은 위치가 경쟁상점보다 못하므로 가격면이나 영업시간, 서비스등의 다른 실력면에서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점의 현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경쟁자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협상이 불가능한 이러한 경우, 즉 상호협력이 불가능할때 상호비난이 시작된다. 밖에서 볼 때에는 상도의 문제인 것같지만 그 내막은 이해부족에 원인을 두고 있다. 위치나 사업여건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점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다소의 가격경쟁이 들어 올지라도 참아주는 것이 좋다. 열세에 놓인 상점에게 가격협상하자는것은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 올바른 기업관

기업이란 기업의 이윤추구가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같지만 사실상 기업은 사회의 기여라는 또다른 책임을 안고 있다. 바로 건전한 기업이란 이 책임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은 성공하고 만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윤추구에 목표를 두지 않고, 소비대중에게 봉사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이 기업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기여란 여러면이 있다. 기업의 존재목적을 소비대중을 위한 것에 두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얻어진 수입의 일부를 종업원이나, 혹은 사회, 혹은 지역사회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들의 사업존재 목적이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자세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만을 지금 다루려고 한다 우리는 기업은 망하나 기업가는 흥하는 풍토 속에서 자라왔으며 그 원리가 이민사회에도 있는 것 같다. 이윤추구에만 목표를 두는 「나」중심적 기업은 발전하기 힘이 든다. 사회는 그러한 기업이 성장하도록 용납하지 않으며, 소비자 또한 그러한 기업이 성장토록 용납하지 않는다.

소비대중에게 봉사코자 하는 마음을 가진 상점이나 생산인의 손을 통하여 공급되거나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비대중에게 기쁨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점이나 기업가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 상점이나 기업가가 손댄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사업에 신뢰를 가지며, 그러한 사고를 가진 집단, 혹은 민족들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에 신뢰를 갖게 되며, Made in Japan, Made in German을 찾는 것이다.

오늘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사업 속에 인식해야 하며, 지루한 14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내일의 우리 고객을 창조해야 한다.

필자는 필자가 운영하던 상점을 다른 한인에게 넘길 때도 그들이 그 상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어 두거나 가능성을 필자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그 상점이 과연 그들 가족에게 성공과 안정의 기회가 되기를 매일아침 주님께 기도한다. 만약 예상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그 책임은 적극적이며 완전한 책임이다.

사람 앞에서만의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통한 조물주께 대한 약속이다.

필자는 필자를 신뢰하지 못한 단한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성공했다. 또한 필자 스스로도 성공적이었으며, 이웃에게도 성공적이다. 교민사회가 무엇이라 입방아를 찧을지라도···.

필자가 하던 상점들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민사회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교민들에게도 기여되어져야 한다는 개인적 기업관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한인고객들이 필자의 주위에 맴돌고 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상점에서 만난 그 고객들이 내일 우리들이 벌인 새로운 사업의 고객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며, 성공적 인간은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속에서 대처하는 사람이며, 성공적 기업가란 바로 내일의 고객을 오늘 창조해 내는 기업가이다.

◆ 위치경쟁과 협상

코너상점은 바로 위치경쟁이다. 사업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등장하면 Rent가 올라가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극비리에 움직인다. 또한 경쟁자가 알면 방해공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움직인다.

다행히 사전에 와서 알려주면 좋지만 사전에 알림 없이 결정내린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한인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선정이 끝나 상호간에 법적 증빙서류인 Lease에 서명이 끝나고, 장비 Order가 이미 나가고, 모든 제반작업이 진행될 때에 어떻게 문제를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소개한다.

첫째, Queen St.의 경우-필자의 상점위치와 기존하고 있던 다른 교민의 상점은 한블럭 떨어진 전차길 건너편에 위치했다. 그 상점은 간판도 없었고, 그 상점이 그곳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장비 Order가 나간지 거의 2주일이 지났다. 주위에 다른 교민들을 통하여 권유가 들어왔다. 모든 하던 일을 중지하고 나가달라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존상점이 별로 타격이 갈 것 같지 않으니 그냥 존속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나가달라는 것이다.

정 그러면 필자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중개인을 통해 물었더니 그것은 책임질 수 없으니 필자더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이다. 자기 투자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투자도 귀한 것을 알아야 하며, 이미 벌어진 사업적 현실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협상은 가능하다. 필자의 상점위치가 경쟁자의 사업에 결정적 결정타였다면 몇달동안이나 Lease광고가 나붙도록 놔두는 것은 질못이다. 또한 무경험과 실수로 방치해 두었다할지라도 두번째의 기회인 협상엔 성의있게 임해야 한다. 사업적으로 당한 문제는 사업적 자세에서 다루어야 하며, 상대방의 나갈 길을 열어 주어야지, 일방적으로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는 이기적 자세는 또한 상대를 이기적 자세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 한인경쟁자는 온 한인사회에 필자에 관한 인신공격과 사생활에까지 욕설을 퍼부었으며, 언론까지 전송시키는데 성공했다.

다음호에 계속